



4Q23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ANALYSIS REPORT

온라인저작권침해분석보고서

2023년 4분기



4Q23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ANALYSIS REPORT

온라인저작권침해분석보고서

2023년 4분기

CONTENTS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

제1장 분석요약

1. 유통경로·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10
2. 전분기 대비 불법복제물 유통량 비교	11

제2장 유통경로별 분석 결과

1. 웹하드	14
2. 커뮤니티	22
3. 국내 기타	25
4. 해외 기타	26

제3장 장르별 유통현황 분석

1. 음악	30
2. 영화	31
3. 방송	32
4. 출판	33
5. 웹소설	34
6. 만화	35
7. SW	36
8. 일반영상 및 기타 장르	37

제4장 해외 사이트 침해대응 현황

1. 접속차단	40
2. 검색 제한	42
3. 광고 게재 중단	43

제5장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모바일앱 유통현황

1.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유통현황	46
2. 모바일앱 유통현황	47

제6장 온라인 저작권 주요 뉴스

1. 영상	52
2. 음악	56
3. 어문	59
4. 게임/SW	61
5. 웹콘텐츠	64
6. 기타	67

1. 배경 및 필요성

- IT 기술의 성장과 OTT 플랫폼, 웹 콘텐츠 등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매년 조 달러 단위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
- 5G와 무선인터넷 보급 가속화, 인공지능 등 기술융합형 콘텐츠 소비 확산, 개도국 인프라 개선, 콘텐츠 구독 플랫폼 다양화, 대기업의 볼트온 전략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불법 콘텐츠 유통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의 유통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원인과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활용하고자 함

2. 목적 및 내용

- 본 보고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의 전체 시장 분석이 아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중인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및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2023년 4분기 불법복제물 유통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1)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량분석, 2)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 등을 정성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석 기간 범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본 보고서는 분석 대상을 유통경로별로 웹하드, 포털(카페·블로그 등 포함) 등으로 구분 하였으며, 장르별 유통현황 분석을 위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 장르로 구분함
- 전문기 유통경로별 유통량 등 결과 비교에서 재택모니터링 사업의 운영기간(채용 등)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경로별·장르별 유통량 비교 분석 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3. 분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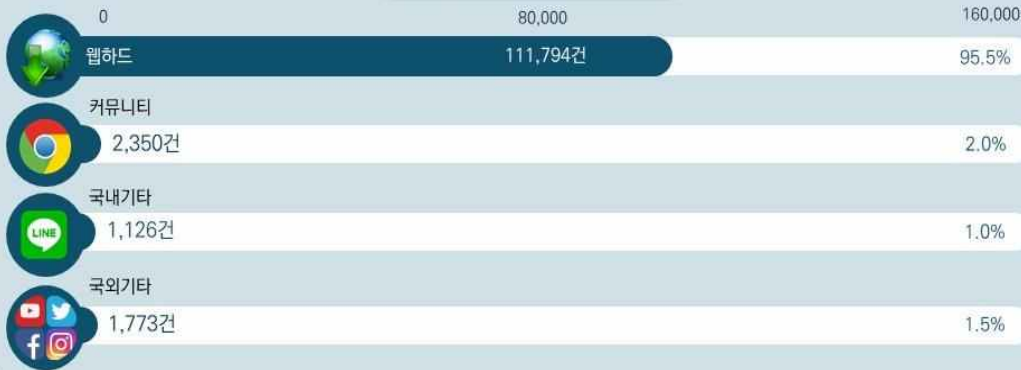
- 「국내서버 사이트」 분석은 **보호원 재택모니터링 실적1)**을 바탕으로 웹하드, 커뮤니티, 국내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국외서버 사이트」 분석은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을 위해 모니터링한 대체사이트 현황, ② 국내의 포털사 저작권 침해 검색결과 노출 제한을 위한 검색제한 요청 현황, ③ 불법사이트 주 수익원 차단을 위한 광고대행사 광고 게재 중단 요청 현황, ④ 재택모니터링 실적을 바탕으로 분류된 국외 기타를 분석하였음
- 신규 침해 현황 및 이슈는 장르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신규 플랫폼 및 기타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에 관하여 조사·분석하여 기술하였음

구분	분석유형	유형	분석 범위
국내 서버 사이트	재택 모니터링 실적	웹하드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웹하드 불법복제물 유통량 순위, 웹하드별 불법복제물 업로드 현황,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커뮤니티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장르별 불법복제물 적발 순위
		국내 기타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해외 서버 사이트	재택 모니터링 실적 등	국외 기타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접속 차단	해외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및 방심위 처리현황, 모니터링 사이트 순위
		검색 제한	국내외 포털사(네이버, 구글) 대상 검색 제한 요청 건
		광고 게재 중단	해외 불법 사이트 내 광고 게재 중단 요청 건 및 광고대행사 대상 광고 게재 중단 확인 및 처리현황
분기별 저작권 주요 뉴스	저작권 관련 주요 뉴스	장르별 뉴스	영상, 출판, 음악, SW, 게임 등 분기별 주요 뉴스 요약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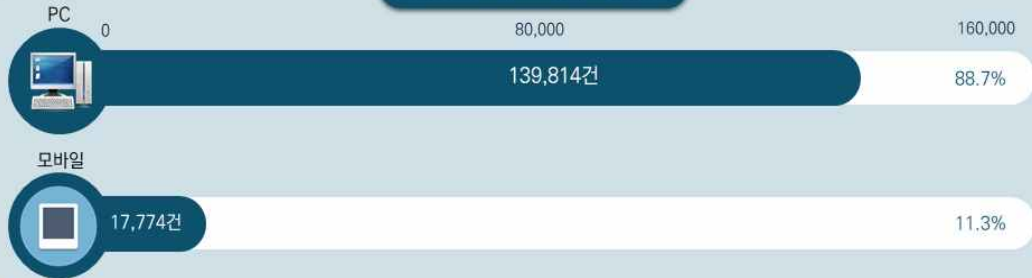
1) 재택모니터링 실적 중 불법복제물 유통 확인이 어려운 모니터링결과에 대한 오류 건 등은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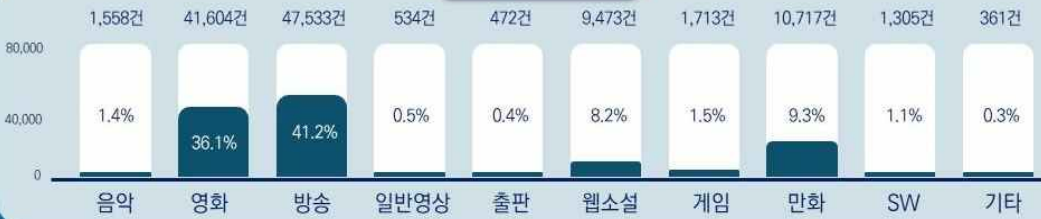
유통경로별 유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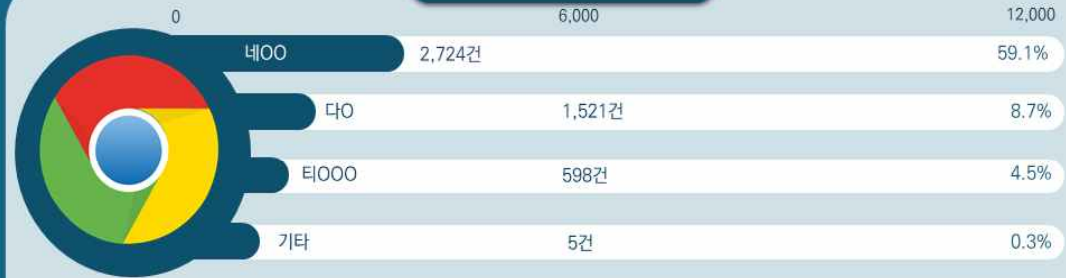
웹하드(PC, 모바일) 유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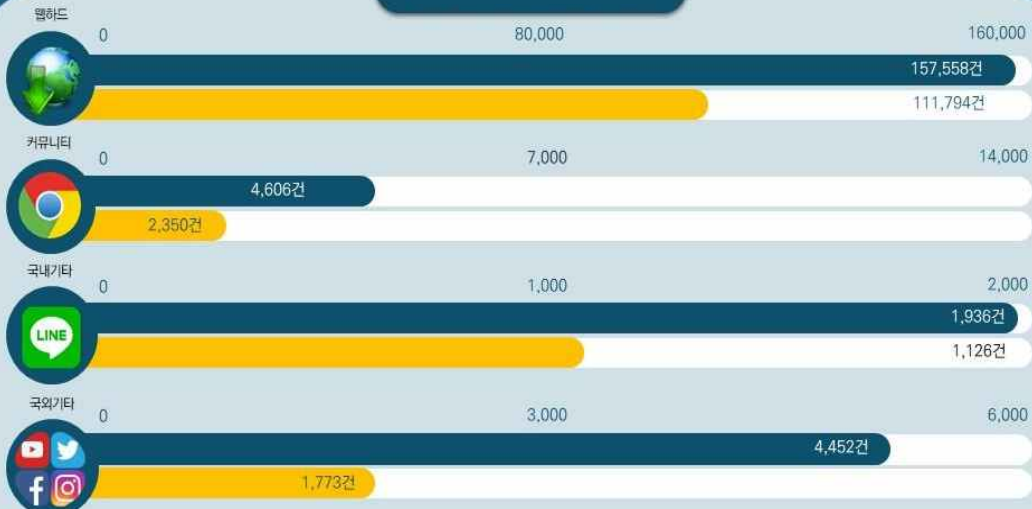
장르별 유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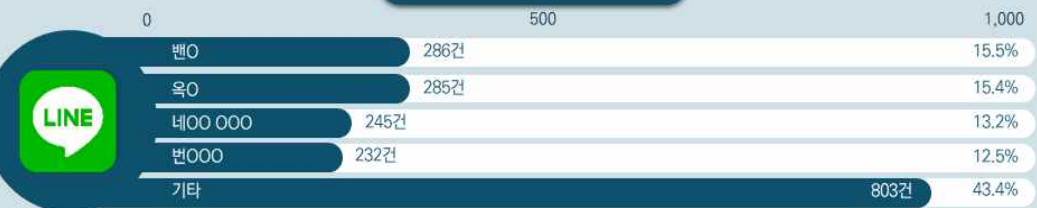
커뮤니티 유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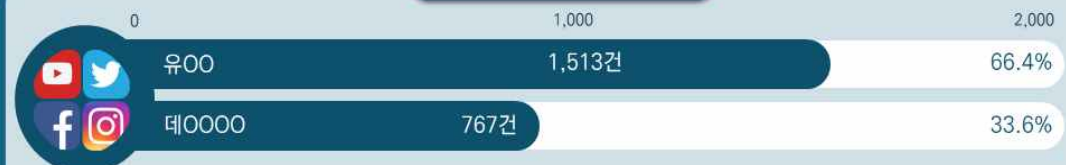
전분기 대비 유통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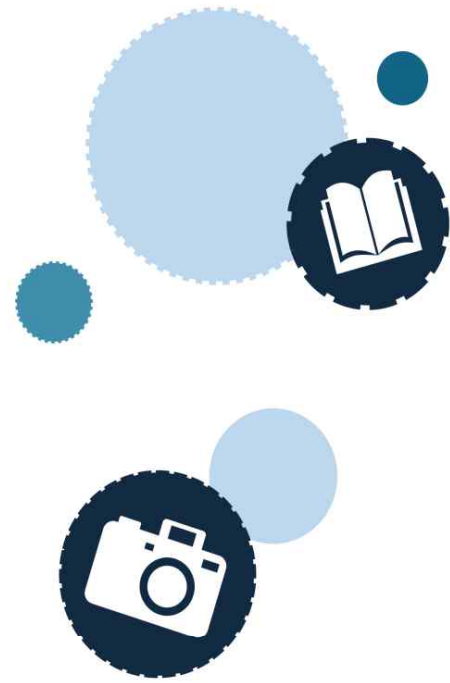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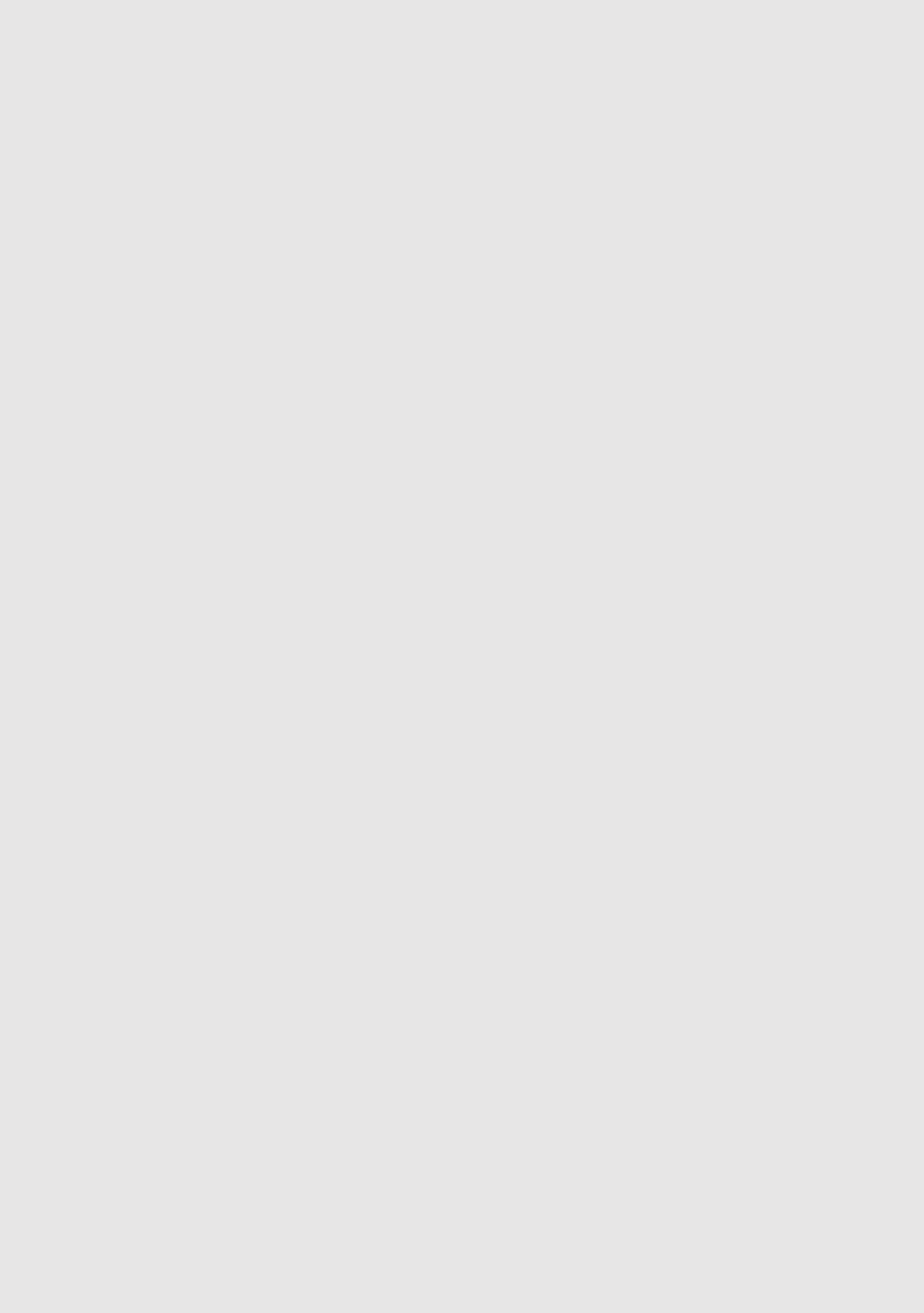


국내기타(SNS 등) 유통량



국외기타(유튜브 등) 유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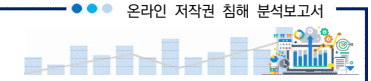


01

분석 요약



제1장 분석요약



1. 유통경로 ·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4분기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117,043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은 '웹하드' 111,794건(95.5%), '커뮤니티' 2,350건(2.0%), '국외 기타(동영상 플랫폼 등)' 1,773건(1.5%), '국내 기타(SNS 등)' 1,126건(1.0%) 순으로 나타났다.

●●● [표]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구분	유통경로별			
	웹하드	커뮤니티	국내 기타 (SNS 등)	국외 기타 (유OO 등)
유통량	111,794	2,350	1,126	1,773
비중	95.5	2.0	1.0	1.5
합계	117,043			

국내서버 사이트의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은 '방송' 47,533건(41.2%), '영화' 41,604건(36.1%), '만화' 10,717건(9.3%), '웹소설' 9,473건(8.2%), '게임' 1,713건(1.5%), '음악' 1,558건(1.4%), 'SW' 1,305건(1.1%), '일반영상' 534건(0.5%), '출판' 472건(0.4%), '기타' 36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구분	음악	영화	방송	일반 영상	출판	웹소설	게임	만화	SW	기타	합계
유통량	1,558	41,604	47,533	534	472	9,473	1,713	10,717	1,305	361	115,270
비중	1.4	36.1	41.2	0.5	0.4	8.2	1.5	9.3	1.1	0.3	100.0

※ 저작물 분류 체계 개선을 통해 기존 '출판'에서 '웹소설'을 구분하였으며, '영화', '방송'에 포함되었던 '일반영상'을 별도로 구분하였음

2. 전분기 대비 불법복제물 유통량 비교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비교

전분기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68,552건 대비 4분기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51,509건 감소한 총 117,043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증감률) 변화는 '웹하드' 45,764건(-29.0%) 감소, '커뮤니티'는 2,256건(-49.0%) 감소, '국내 기타(SNS 등)' 810건(41.8%) 감소, '국외 기타(동영상 플랫폼 등)' 2,679건(6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전분기 대비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비교

(단위 : 건, %)

구분	유통경로별				합계
	웹하드	커뮤니티	국내기타 (SNS 등)	국외기타 (유OO 등)	
전분기	157,558	4,606	1,936	4,452	168,552
4분기	111,794	2,350	1,126	1,773	117,043
증감률	-29.0	-49.0	-41.8	-60.2	-30.6
증감량	-45,764	-2,256	-810	-2,679	-51,509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비교

전분기 국내·외 불법복제물의 장르별 유통량을 비교한 결과 '음악' 1,180건(-43.1%) 감소, '영화' 20,105건(-32.1%) 감소, '방송' 13,743건(-22.1%) 감소, '일반영상' 646건(-54.7%) 감소, '출판' 1,796건(-79.2%) 감소, '웹소설' 200건(-2.1%) 감소, '게임' 520건(-23.3%) 감소, '만화' 13,512건(-55.8%) 감소, 'SW' 594건(83.5%) 증가, '기타' 401건(-5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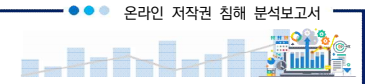
●●● [표] 전분기 대비 국내·외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비교

(단위 : 건, %)

구분	음악	영화	방송	일반 영상	출판	웹소설	게임	만화	SW	기타	합계
전분기	2,738	62,583	62,175	1,180	2,268	9,673	2,233	24,229	711	762	168,552
4분기	1,558	42,478	48,432	534	472	9,473	1,713	10,717	1,305	361	117,043
증감률	-43.1	-32.1	-22.1	-54.7	-79.2	-2.1	-23.3	-55.8	83.5	-52.6	-30.6
증감량	-1,180	-20,105	-13,743	-646	-1,796	-200	-520	-13,512	594	-401	-51,509



제2장 유통경로별 분석 결과



1. 웹하드

가. 유형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웹하드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111,794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은 'PC' 92,908건(83.1%), '모바일' 18,886건(16.9%)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불법복제물 유통량(증감률) 변화는 'PC' 총 46,906건(-33.5%) 감소, '모바일' 총 1,142건(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웹하드 PC, 모바일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구분	전분기 유통량	비중	4분기 유통량	비중	증감률	증감량
PC	139,814	88.7	92,908	83.1	-33.5	-46,906
모바일	17,744	11.3	18,886	16.9	6.4	1,142
합계	157,558	100.0	111,794	100.0	-29.0	-45,764

4분기 월별 웹하드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을 살펴보면 '10월' 51,100건(45.7%), '11월' 48,948건(43.8%), '12월' 11,746건(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10월'이 가장 많은 유통량을 차지하였다.

●●● [표] 웹하드 월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단위 : 건, %)

구분	10월	11월	12월
유통량	51,100	48,948	11,746
비중	45.7	43.8	10.5
합계	111,794		

나.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4분기 웹하드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4분기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을 살펴보면 ‘방송’ 47,417건(42.4%), ‘영화’ 41,237건(36.9%), ‘만화’ 10,645건(9.5%), ‘웹소설’ 9,473건(8.5%), ‘게임’ 1,713건(1.5%), ‘SW’ 1,305건(1.1%), ‘음악’ 4건(0.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웹하드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구분	음악	영화	방송	웹소설	게임	만화	SW
10월	1	19,085	20,483	4,149	552	6,338	492
11월	3	18,250	21,941	4,098	990	3,061	605
12월	-	3,902	4,993	1,226	171	1,246	208
합계	4	41,237	47,417	9,473	1,713	10,645	1,305
비중	0.1	36.9	42.4	8.5	1.5	9.5	1.1
총 111,794							

◆◆◆ [그림] 웹하드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나. 웹하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순위

웹하드 PC, 모바일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웹하드 전체 유통량 총 111,794건 중 불법복제물 유통량 합계가 많은 순으로 웹하드 업체 25개를 선정하 결과, ‘파***’ 11,223건, ‘파****’ 9,063건, ‘씨****’ 8,050건, ‘쉐****’ 5,404건, ‘과****’ 5,10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웹하드별 PC, 모바일 불법복제물 유통량 순위

(단위 : 건, %)

순위	사이트명	유형	음악	영화	방송	웹소설	게임	만화	SW	합계	비중
1	파**	PC	-	1,838	7,685	847	193	542	118	11,223	10.0
2	파***	PC	-	2,047	4,572	1,185	264	768	227	9,063	8.1
3	씨***	PC	-	2,365	5,419	19	-	247	-	8,050	7.2
4	쉐***	PC	-	515	3,897	534	-	458	-	5,404	4.8
5	파***	PC	-	1,656	2,653	678	-	117	-	5,104	4.6
6	파***	PC	3	1,879	2,151	490	99	99	35	4,756	4.3
7	파**	PC	-	638	3,080	-	-	762	-	4,480	4.0
8	파***	PC	-	2,271	-	813	147	846	161	4,238	3.8
9	스****	PC	-	973	2,092	119	-	778	-	3,962	3.5
10	미****	PC	-	1,387	1,106	732	92	271	82	3,670	3.3
11	파**	모바일	-	2,431	1,237	-	-	-	-	3,668	3.3
12	파***	PC	1	888	1,584	450	-	714	-	3,637	3.3
13	온***	PC	-	287	978	536	4	1,309	-	3,114	2.8
14	에***	PC	-	1,227	22	537	246	824	252	3,108	2.8
15	파***	모바일	-	3,044	-	-	-	-	-	3,044	2.7
16	애***	PC	-	1,243	389	673	196	177	248	2,926	2.6
17	파****	PC	-	761	749	918	156	178	98	2,860	2.6
18	파***	모바일	-	2,546	-	-	-	-	-	2,546	2.3
19	투***	PC	-	146	1,851	169	-	285	-	2,451	2.2
20	티*	PC	-	800	1,043	153	-	246	-	2,242	2.0
21	메***	PC	-	391	660	273	-	694	-	2,018	1.8
22	위***	PC	-	175	1,496	-	36	82	-	1,789	1.6
23	파***	PC	-	219	1,182	-	185	93	-	1,679	1.5
24	파**	PC	-	1,033	-	160	95	265	84	1,637	1.5
25	파***	모바일	-	1,601	-	-	-	-	-	1,601	1.4
기타 웹하드			-	8,876	3,571	187	-	890	-	13,524	12.1
전체 웹하드 합계			4	41,237	47,417	9,473	1,713	10,645	1,305	111,794	100.0

라. 웹하드별 불법복제물 업로더 현황

웹하드 PC 불법복제물 업로더 현황

4분기 웹하드 PC의 불법복제물 업로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9개 웹하드에서 총 5,198개 업로더가 확인되었으며, 업로더 수가 가장 많은 웹하드는 '파***'으로 총 495개 업로더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로드 횟수가 많은 업로더는 '쉐***'의 'asdihof*****'(1,153건), '파***'의 'sey***'(1,023건), '파***'의 'zzu***'(90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 [표] 웹하드별 PC 불법복제물 업로더 현황

사이트명	총 업로더 수	업로더명(1위)	업로드 건	업로더명(2위)	업로드 건	업로더명(3위)	업로드 건
파***	495	핑****	403	skyglor*****	312	mega****	289
미***	367	skyglo*****	194	라이텐*****	182	잘하***	139
파***	348	중****	175	라****	102	디스****	95
파**	340	sey*****	1,023	zzu***	904	sum***	761
파**	336	576*****	520	하****	281	joa****	158
파***	311	엘****	174	웅**	165	라****	164
에***	305	hongs*****	205	소****	169	woo****	120
스****	276	제****	676	하늘**	176	하****	107
예***	250	엘***	294	hongs*****	201	난**	194
온***	198	중***	408	금개****	251	그애***	188
쉐***	184	asdihof*****	1,153	seaw****	490	하늘***	223
사***	182	qwsdok****	742	퓨팟**	375	hekto**	329
파***	153	하****	217	han****	215	블***	195
파**	149	s*****	177	명**	120	오**	104
파**	148	중****	164	슈퍼**	140	코**	100
파***	147	조**	701	tara***i	240	t***	218
티*	143	vfob*****	165	윤*	159	비천무****	128
위***	120	skyglo*****	167	ghs4***	161	휴**	78
빅***	115	l*****	111	alkh1***	94	coco****	93
파***	111	dkfkr*****	170	여름시***	159	skyglor****	116
메***	109	중***	322	증*	198	호12***	132
케****	108	엘***	235	sadsmj****	111	그애***	95
파***	101	항***	428	1180****	414	우***	290
파***	62	코***	104	망*	80	슈**	61
투***	58	0*****	788	증***	468	하****	175
메***	38	로***	17	이**	14	벤**	13
파***	34	긴*****	67	defeh5****	65	r***	55
유*	6	디**	22	탈****	21	줄***	18
올**	4	giv*	1	hel*	1	s***	1
전체 웹하드 PC	5,198	asdihof***** (웹어박스)	1,153	sey*** (파일썸)	1,023	zzu*** (파일썸)	904

웹하드 모바일 불법복제물 업로더 현황

4분기 웹하드 모바일 불법복제물 업로더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개 웹하드에서 총 2,116개 업로더가 확인되었으며, 업로더 수가 가장 많은 웹하드는 '파***'로 총 327개 업로더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로드 횟수가 많은 업로더는 '파***'의 '메*' (174건), '파***'의 'gksdy***'(164건), '파***'의 'inbok6***'(16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 [표] 웹하드별 모바일 불법복제물 업로더 현황

모바일명	총 업로더 수	업로더명(1위)	업로드 건	업로더명(2위)	업로드 건	업로더명(3위)	업로드 건
파**	327	메*	174	h***	139	s***	135
파***	298	megan***	158	ninetozero***	127	gpau***	109
에***	171	hongsho***	105	skyglory***	75	대***	75
예***	165	hongsho***	95	하늘***	78	대***	75
파일***	136	중수8***	55	잘하***	11	eot***	9
티*	124	메*	80	godnr1***	66	윤*	56
온***	111	wlsdn9***	23	나***	22	hannalo****	19
케이***	103	와**	45	jongsu8***	41	skyglor***	41
파**	101	하늘***	87	84984***	40	쌈**	27
파***	93	동***	91	코***	83	벤**	81
파***	90	gksdy***	164	inbok6***	163	tkddn2***	148
위***	89	ghs4***	137	skyglory***	127	돌***	68
메***	74	해우기1***	45	호***	41	장***	29
빅**	63	ruese0***	68	ghs4***	34	seon0***	25
투***	47	하늘***	84	hin1***	51	skyglory****	32
파***	47	skyglory***	43	jo0***	30	kj8***	26
피**	40	파**	52	난**	26	ru***	21
파***	37	ru***	18	hwj***	16	neww****	14
전체 웹하드 모바일	2,116	메* (파일썸)	174	gksdy*** (파일보고)	164	inbok6*** (파일보고)	163

마.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영화, 방송, 드라마, 웹소설, 만화, 음악, 게임, SW로 구분하여 4분기 동안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가장 높았던 10개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명, 권리사 등을 분석하였으며, '영화', '방송(드라마 제외)', '드라마'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였다.

●●● [표]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국내 영화				국외 영화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국가	유통량(건)
1	독전	NEW	444	1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롯데 엔터테인먼트	미국	2,970
2	발레리나	넷플릭스	324	2	크리에이터	월트디즈니	미국	1,578
3	광대들: 풍문조작단	위너브러더스	300	3	오렌하이머	유니버설 픽처스	미국 영국	1,442
4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위너브러더스	192	4	더 년 2	위너브러더스	미국	1,289
5	싱글라이더	위너브러더스	184	5	더 마블스	월트디즈니	미국	971
6	독전2	넷플릭스	184	6	더 퍼스트 슬램덩크	NEW	일본	968
7	말정	영화사 그림	183	7	더 킬러	CJ CGV	미국	893
8	악질경찰	위너브러더스	159	8	메가론 2	위너브러더스	미국	853
9	화환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149	9	인디애나 존스: 문명의 다이얼	월트디즈니	미국	780
10	타겟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120	10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월트디즈니	미국	734

국내 방송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1	돌싱글즈	MBN	143
2	강철부대	채널A	127
3	나는 SOLO (나는 솔로)	ENA	96
4	데블스 플랜	넷플릭스	73
5	국가수사본부	Wavve	63
6	불타는 장미단	MBN	55
7	시사쇼 이것이 정지다	TV조선	19
8	에스파의 싱크로드	Wavve	7
9	매리퀴어	Wavve	7
10	버튼게임	Wavve	6

국외 방송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국가	유통량(건)
1	원피스	후지TV	일본	7,446
2	조조의 기묘한 모험	Tokyo MX	일본	3,372
3	닥터 스톤	Tokyo MX	일본	1,911
4	명탐정 코난	NTV	일본	1,638
5	나의 행복한 결혼	Tokyo MX	일본	1,092
6	토리코	후지TV	일본	956
7	주술회전	MBS	일본	950
8	성검학원의 마검사	TV도쿄	일본	716
9	BLEACH 천년월전 편	TV도쿄	일본	586
10	바람의 검심 -메이지 검객 낭만기-	후지TV	일본	540

국내 드라마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1	유괴의 날	ENA	2,872
2	악인전기	ENA	2,127
3	낮에 뜨는 달	ENA	1,793
4	최악의 악	디즈니+	1,661
5	남남	ENA	538
6	이두내	넷플릭스	537
7	무빙	디즈니+	516
8	한강	디즈니+	479
9	사랑한다고 말해줘	ENA	372
10	신병2	ENA	345

국외 드라마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국가	유통량(건)
1	전경기	iQIYI	중국	704
2	첸 V	아마존 프라임	미국	560
3	NCIS	CBS	미국	492
4	홍랜드	Showtime	미국	454
5	썰팅	CBS	미국	435
6	CODE -소원의 대가-	YTV	일본	372
7	이애위영	후난 위성TV	중국	362
8	최요원적거리	WeTV	중국	352
9	장월신명	YOUKU	중국	341
10	더 콘티넨탈: 프론트 런드 오브 존 워	피콕	미국	324

웹소설

순위	콘텐츠명	출판사	유통량(건)
1	신화급 각성으로 최상위중	에이시미디어, 시리즈	202
2	사상최강의 데빌사위	만월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170
3	최강 암살자가 듀얼 클래스로 귀환했다	제우미디어,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156
4	외계문명의 전승자	휴먼와이즈미디어,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47
5	전여 포인트 99999999999P	JC미디어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46
6	이번 생은 우주대스타	디엔씨미디어, 카카오페이지	142
7	21세기 대마법사	스토리위즈,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41
8	러스트 [RUST]	문피아	138
9	신비의 제왕	판오를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33
10	조선 왕자가 천하를 요리하는 법	오호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25

만화

순위	콘텐츠명	출판사	유통량(건)
1	상사농과 캡슐 호텔에서 하룻밤	넥스큐브	162
2	과잉 망상 소년	넥스큐브	143
3	내 밑에서 가는 얼굴 좀 더 보여줘	넥스큐브	138
4	아쿠자의 멍잇감이 된 나	넥스큐브	137
5	잠자는 척해도 소용 없어	넥스큐브	133
6	소방관이 이렇게 가벼워도 돼?	넥스큐브	132
7	임시 남편은 익애 아쿠자	넥스큐브	120
8	포옹만 하고 끝낼 리 없잖아	넥스큐브	119
9	앉아, 질렀어	넥스큐브	118
10	외국인의 대물로 몇 번이고 가버려	넥스큐브	114

음악

순위	콘텐츠명	아티스트	유통량(건)
1	Love Lee	AKMU	2
2	Baddie	IVE	2

게임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1	로드 오브 더 폴른	CI Games	64
2	원피스 해적무쌍 4	BANDAI NAMCO	62
3	사이버펑크 2077	CD PROJEKT RED	47
4	다잉 라이트 2 스테이 휴먼	Techland	45
5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	아트딩크, 스퀘어 에닉스	44
6	스타필드	Bethesda Softworks	43
7	DREDGE	Black Salt Games	37
8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	시우스포 게임즈	36
9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Insomniac Games	36
10	이블 웨스트	Fiting Wild Hog	35

SW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1	Microsoft Office 2021	Microsoft Corp.	182
2	한컴오피스 2022	(주)한글과컴퓨터	147
3	Microsoft Office 2016	Microsoft Corp.	97
4	AutoCAD 2024	Autodesk Inc.	86
5	Adobe Premiere Pro CC 2024	Adobe Systems Inc.	63
6	Adobe Photoshop 2024	Adobe Systems Inc.	60
7	Adobe Illustrator CC 2024	Adobe Systems Inc.	50
8	Adobe Photoshop 2023	Adobe Systems Inc.	46
9	Adobe Photoshop Lightroom (Classic) 2024	Adobe Systems Inc.	45
10	Adobe After Effects CC 2024	Adobe Systems Inc.	44

2. 커뮤니티

가. 사이트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커뮤니티 사이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2,350건으로, 사이트별 유통량(비중)은 '네** 블로그' 1,308건(55.7%), '다* 카페' 856건(36.4%), '네** 카페' 116건(4.9%), '티***' 51건(2.2%), '디****' 19건(0.8%)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 [표] 커뮤니티 사이트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사이트명	전분기 유통량	비중	4분기 유통량	비중	증감률
네** 블로그	2,724	59.1	1,308	55.7	-52.0
다* 카페	1,521	33.0	856	36.4	-43.7
네** 카페	238	5.1	116	4.9	-51.3
티***	122	2.6	51	2.2	-58.2
디****	-	-	19	0.8	100.0
삼*	1	0.1	-	-	-100.0
합계	4,606	100.0	2,350	100.0	-49.0

4분기 커뮤니티 사이트 월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10월' 1,136건, '11월' 997건, '12월' 217건으로 나타났으며, 월별 비중은 '10월' 48.3%, '11월' 42.4%, '12월' 9.2%로 '10월' 유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커뮤니티 사이트 월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사이트명	10월	11월	12월	합계
네** 블로그	637	576	95	1,308
다* 카페	397	340	119	856
네** 카페	74	39	3	116
티***	28	23	-	51
디****	-	19	-	19
합계	1,136	997	217	2,350
비중	48.3	42.4	9.2	100.0

나.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장르별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장르별 유통량(비중)은 '음악' 1,554건(66.1%), '일반영상' 534건(22.7%), '방송' 116건(4.9%), '만화' 72건(3.1%), '기타' 51건(2.2%), '출판' 23건(1.0%)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영화', '웹소설', '게임', 'SW' 장르의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 [표] 커뮤니티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구분	음악	방송	일반영상	출판	만화	기타	합계
유통량	1,554	116	534	23	72	51	2,350
비중	66.1	4.9	22.7	1.0	3.1	2.2	100.0

월별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커뮤니티 사이트 월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10월' 1,136건, '11월' 997건, '12월' 217건으로 나타났으며, 월별 비중은 '10월' 48.3%, '11월' 42.4%, '12월' 9.2%로 '10월' 유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장르별 월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구분	10월	11월	12월	합계
음악	713	660	181	1,554
일반영상	253	247	34	534
방송	89	26	1	116
만화	28	44	-	72
기타*	45	6	-	51
출판	8	14	1	23
합계	1,136	997	217	2,350
비중	48.3	42.4	9.2	100.0

다.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음악’, ‘방송’, ‘만화’로 구분하여 4분기 동안 불법복제물 유통이 확인된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명, 권리사 등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영상’(뮤지컬 촬영물 거래), ‘출판’(PDF 중고거래), ‘기타’(불법 정보)의 경우 저작물을 구분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 [표]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음악				방송			
순위	콘텐츠명	아티스트	유통량(건)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1	보약같은 친구	진시몬	115	1	출동! 슈퍼윙스	EBS	53
2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	58	2	뽕뽕뽕 뽀로로	EBS1	29
3	남자는 말합니다	정민호	46	3	홀랜드	미국 Showtime	7
4	빙고	거북이	41	4	원피스	일본 후지TV	4
5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임영웅	35	5	유 퀴즈 온 더 블록	tvN	4
6	비와 당신	렘블피쉬	35	6	미스트롯 2	TV조선	3
7	질풍기도	유정석	32	7	명탐정 코난	일본 NTV	2
8	목포행 완행열차	정윤정	31	8	꼬마버스 타요	EBS1	2
9	안동역에서	진성	27	9	나 혼자 산다	MBC	2
10	봄봄봄	로이킴	27	10	아기공룡 둘리	SBS	1

만화			
순위	콘텐츠명	출판사	유통량(건)
1	원피스	대원 씨아이	27
2	주문은 토끼입니까?	대원 씨아이	19
3	사정을 모르는 전학생이 거침없이 다가온다	서울미디어 코믹스	9
4	귀염기만 한 게 아닌 시키모리 양	서울미디어 코믹스	4
5	사카모토 데이즈	대원 씨아이	4
6	루리 드래곤	서울미디어 코믹스	4
7	쌍둥이 남매의 속사정	서울미디어 코믹스	3
8	슬렘덩크	대원 씨아이	1
9	코미 양은 커뮤중입니다	소미 미디어	1

3. 국내 기타

가. 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국내 기타 사이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1,126건으로, 경로별 유통량(비중)은 ‘번***’ 379건(33.7%), ‘밴*’ 367건(32.6%), ‘기타’ 246건(21.8%), ‘당***’ 70건(6.2%), ‘지**’ 64건(5.7%)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10월’ 591건(52.5%), ‘11월’ 454건(40.3%), ‘12월’ 81건(7.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국내 기타 월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사이트명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중
번***	195	162	22	379	33.7
밴*	177	162	28	367	32.6
당***	37	33	-	70	6.2
지**	32	27	5	64	5.7
기타 ²⁾	150	70	26	246	21.8
합계	591	454	81	1,126	100.0
비중	52.5	40.3	7.2		100.0

나.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국내 기타 불법복제물 장르별 유통량(비중)은 ‘출판’ 449건(39.9%), ‘영화’ 367건(32.6%), ‘기타’ 310건(27.5%)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음악’, ‘방송’, ‘일반영상’, ‘웹소설’, ‘게임’, ‘만화’, ‘SW’ 장르의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 [표] 국내 기타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구분	영화	출판	기타	합계
유통량	367	449	310	1,126
비중	32.6	39.9	27.5	100.0

2) 기타는 ‘쿠*’ 62건, ‘네** 스마트스토어’ 58건, ‘옥*’ 57건, ‘인*** 쇼핑/인*** 도서’ 25건, ‘1****’ 22건, ‘티*’ 18건, ‘(주)위**’ 3건, ‘롯데***’ 1건으로 확인

4. 국외 기타

가. 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국외 기타 사이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1,773건으로, 경로별 유통량(비중)은 '데****' 1,278건(72.1%), '유**' 495건(27.9%)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10월' 813건(45.9%), '11월' 567건(31.9%), '12월' 393건(22.2%)으로, '10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국외 기타 월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사이트명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중
데****	468	452	358	1,278	72.1
유**	345	115	35	495	27.9
합계	813	567	393	1,773	100.0
비중	45.9	31.9	2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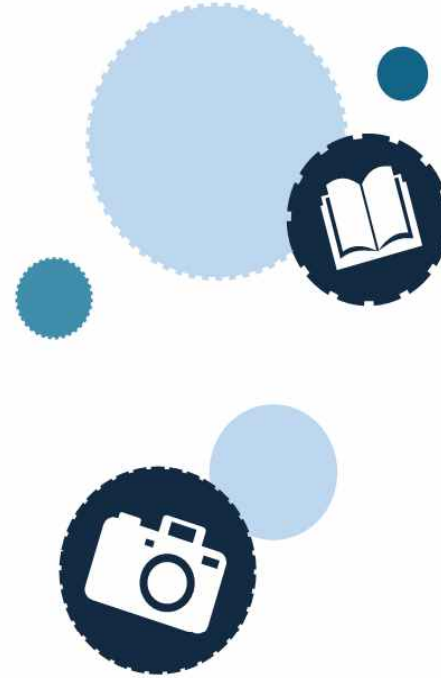
나.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국외 기타 불법복제물 장르별 유통은 '방송' 899건(50.7%), '영화' 874건(4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악', '일반영상', '출판', '웹소설', '게임', '만화', 'SW', '기타' 장르의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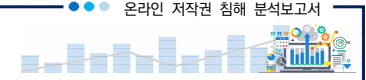
●●● [표] 국외 기타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 건, %)

구분	영화	방송	합계
유통량	874	899	1,773
비중	49.3	50.7	100.0



제3장 장르별 유통현황 분석



1. 음악

4분기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1,558건으로,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은 '커뮤니티' 1,554건(99.7%), '웹하드' 4건(0.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음악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국내외 비중

(단위 건, %)

구분	유통량	비중	국내	비중	국외	비중
웹하드	4	0.3	4	0.3	-	-
커뮤니티	1,554	99.7	1,535	99.7	19	100.0
국내 기타	-	-	-	-	-	-
국외 기타	-	-	-	-	-	-
합계	1,558	100.0	1,539	100.0	19	100.0

●●● [표]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국내 음악				국외 음악			
순위	콘텐츠명	아티스트	유통량(건)	순위	콘텐츠명	아티스트	유통량(건)
1	보약같은 친구	진시몬	115	1	Rewrite The Stars	Zac Efron, Zendaya	6
2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	58	2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Mariah Carey	5
3	남자는 말합니다	장민호	46	3	Santa Tell Me	Ariana Grande	3
4	빙고	거북이	41	4	STAY	The Kid LAROI, Justin Bieber	2
5	어느 60대 노부부이야기	임영웅	35	5	Snowman	Sia	2
6	비와 당신	럼블피쉬	35	6	See You Again	Charlie Puth, Wiz Khalifa	1
7	질풍가도	유정석	32				
8	목포행 안행열차	장윤정	31				
9	안동역에서	진성	27				
10	봄봄봄	로이킴	27				

2. 영화

4분기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42,478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은 '웹하드' 41,237건(97.1%), '국외 기타' 874건(2.1%), '국내 기타' 367건(0.9%) 순으로 나타났다.

●●● [표] 영화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국내외 비중

(단위 건, %)

구분	유통량	비중	국내	비중	국외	비중
웹하드	41,237	97.1	3,249	85.5	37,988	98.2
커뮤니티	-	-	-	-	-	-
국내 기타	367	0.9	297	7.8	70	0.2
국외 기타	874	2.1	252	6.6	622	1.6
합계	42,478	100.0	3,798	100.0	38,680	100.0

●●● [표]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국내 영화				국외 영화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1	독전	NEW	448	1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롯데엔터테인먼트	2,979
2	발레리나	넷플릭스	327	2	크리에이터	월트 디즈니	1,581
3	광대들: 풍문조작단	위너 브러더스	301	3	오렌하이머	유니버설 픽처스	1,444
4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위너 브러더스	192	4	더 년 2	위너 브러더스	1,293
5	독전2	넷플릭스	188	5	더 마블스	월트 디즈니	975
6	밀정	영화사 그림	184	6	더 퍼스트 슬램덩크	NEW	972
7	싱글라이더	위너 브러더스	184	7	더 킬러	CJ CGV	898
8	악질경찰	위너 브러더스	159	8	메가론 2	위너 브러더스	857
9	화란	플러스엔 엔터테인먼트	158	9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월트 디즈니	780
10	타겟	플러스엔 엔터테인먼트	129	10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월트 디즈니	737

3. 방송

4분기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48,432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은 '웹하드' 47,417건(97.9%), '국외 기타' 899건(1.9%), '커뮤니티' 116건(0.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방송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국내외 비중

(단위 건, %)

구분	유통량	비중	국내	비중	국외	비중
웹하드	47,417	97.9	14,100	95.52	33,317	99.0
커뮤니티	116	0.2	99	0.67	17	0.1
국내 기타	-	-	-	-	-	-
국외 기타	899	1.9	563	3.81	336	0.9
합계	48,432	100.0	14,762	100.0	33,670	100.0

●●● [표]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국내 방송				국외 방송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1	유괴의 날	ENA	2,901	1	원피스	일본 후지TV	7,450
2	악인전기	ENA	2,152	2	조조의 기묘한 모험	일본 Tokyo MX	3,372
3	낮에 뜨는 달	ENA	1,794	3	닥터 스톤	일본 Tokyo MX	1,911
4	최악의 악	디즈니+	1,661	4	명탐정 코난	일본 NTV	1,641
5	남남	ENA	538	5	나의 행복한 결혼	일본 Tokyo MX	1,118
6	이두나!	넷플릭스	537	6	토리코	일본 후지TV	961
7	무빙	디즈니+	516	7	주술회전	일본 MBS	950
8	한강	디즈니+	479	8	성경학원의 마검사	일본 TV도쿄	716
9	사랑한다고 말해줘	ENA	372	9	전장기	중국 iQIYI	705
10	하이쿠키	U+모바일tv	352	10	BLEACH 천년월전 편	일본 TV도쿄	586

4. 출판

4분기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472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은 '국내 기타' 449건(95.1%), '커뮤니티' 23건(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작물 순위에서 'PDF 중고거래'의 경우 저작물로 구분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 [표] 출판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국내외 비중

(단위 건, %)

구분	유통량	비중	국내	비중	국외	비중
웹하드	-	-	-	-	-	-
커뮤니티	23	4.9	23	4.9	-	-
국내 기타	449	95.1	449	95.1	-	-
국외 기타	-	-	-	-	-	-
합계	472	100.0	472	100.0	-	-

●●● [표]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국내 출판

순위	콘텐츠명	출판사	유통량(건)
1	출달의 일반화학	사이플러스	3
2	생명과학	라이프 사이언스	1
3	K-IFRS 재무회계	(주)신영사	1
4	Real English for Nurses 기본편	다락원	1
5	People and Life 1	다락원	1
6	최신 대학물리학	복스힐	1
7	미분적분학	복스힐	1

5. 웹소설

4분기 웹소설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9,473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경로 중 '웹하드'에서 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웹소설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국내외 비중

(단위 건, %)

구분	유통량	비중	국내	비중	국외	비중
웹하드	9,473	100.0	9,135	100.0	338	100.0
커뮤니티	-	-	-	-	-	-
국내 기타	-	-	-	-	-	-
국외 기타	-	-	-	-	-	-
합계	9,473	100.0	9,135	100.0	338	100.0

●●● [표] 웹소설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국내 웹소설

순위	콘텐츠명	출판사 (유통사)	유통량(건)
1	신화급 각성으로 최상위종	에이시미디어 시리즈	202
2	최강 암살자가 듀얼 클래스로 귀환했다	제우미디어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156
3	외계문명의 전승자	휴먼와이즈미디어,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47
4	잔여 포인트 999999999999P	JC미디어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46
5	이번 생은 우주대스타	디앤씨미디어, 카카오페이지	142
6	21세기 대마법사	스토리위즈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41
7	러스트 [RUST]	문피아	138
8	조선 왕자가 천하를 요리하는 법	오츠,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25
9	나 혼자 탐에서 농사	문피아 시리즈	121
10	천마의 능력으로 전설이 되었다	문피아	117

국외 웹소설

순위	콘텐츠명	출판사 (유통사)	유통량(건)
1	사상최강의 데빌사위	만월,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170
2	신비의 제왕	판오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133
3	로도 400억에 당청되었지만 이세계로 이주한다	S노벨, 시리즈 리디북스	18
4	웨편로드	KW북스,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조아라	17

6. 만화

4분기 만화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10,717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은 '웹하드' 10,645건(99.3%), '커뮤니티' 72건(0.7%) 순으로 나타났다.

●●● [표] 만화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국내외 비중

(단위 건, %)

구분	유통량	비중	국내	비중	국외	비중
웹하드	10,645	99.3	66	100.0	10,579	99.3
커뮤니티	72	0.7	-	-	72	0.7
국내 기타	-	-	-	-	-	-
국외 기타	-	-	-	-	-	-
합계	10,717	100.0	66	100.0	10,651	100.0

●●● [표] 만화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국내 만화				국외 만화			
순위	콘텐츠명	출판사	유통량(건)	순위	콘텐츠명	출판사	유통량(건)
1	열혈강호	대원씨아이	64	1	상사놀과 겹술 호텔에서 하룻밤	넥스큐브	162
2	스타크래프트 에워너	오현석프로덕션	2	2	과잉 망상 소년	넥스큐브	143
				3	내 밑에서 가는 얼굴 좀 더 보여줘	넥스큐브	138
				4	아쿠자의 멍릿감이 된 나	넥스큐브	137
				5	장자는 천해도 소용 없어	넥스큐브	133
				6	소방관이 이렇게 가벼워도 돼?	넥스큐브	132
				7	임시 남편은 익애 아쿠자	넥스큐브	120
				8	포용만 하고 끝낼 리 없잖아	넥스큐브	119
				9	앉아, 잘했어	넥스큐브	118
				10	외국인의 대물로 몇 번이고 가버려	넥스큐브	114

7. SW

4분기 SW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1,305건으로, 유통경로 중 '웹하드'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SW의 경우 대용량 파일이 많아 커뮤니티 등의 유통경로에서 공유는 어렵다. 국내는 오피스 및 워드 프로그램의 유통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는 오피스 및 그래픽 프로그램의 유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SW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국내외 비중

(단위 건, %)

구분	유통량	비중	국내	비중	국외	비중
웹하드	1,305	100.0	219	100.0	1,086	100.0
커뮤니티	-	-	-	-	-	-
국내 기타	-	-	-	-	-	-
국외 기타	-	-	-	-	-	-
합계	1,305	100.0	219	100.0	1,086	100.0

●●● [표] SW 불법복제물 유통 순위

국내 SW				국외 SW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순위	콘텐츠명	권리사	유통량(건)
1	한컴오피스 2022	한글과컴퓨터	147	1	Microsoft Office 2021	Microsoft Corp.	182
2	한컴오피스 2020	한글과컴퓨터	25	2	Microsoft Office 2016	Microsoft Corp.	97
3	한글 2022	한글과컴퓨터	24	3	AutoCAD 2024	Autodesk Inc.	86
4	한컴오피스 2018	한글과컴퓨터	15	4	Adobe Premiere Pro CC 2024	Adobe Systems Inc.	63
5	한글 2020	한글과컴퓨터	6	5	Adobe Photoshop 2024	Adobe Systems Inc.	60
6	한글 2018	한글과컴퓨터	2	6	Adobe illustrator CC 2024	Adobe Systems Inc.	50
				7	Adobe Photoshop 2023	Adobe Systems Inc.	46
				8	Adobe Photoshop Lightroom (Classic) 2024	Adobe Systems Inc.	45
				9	Adobe After Effects CC 2024	Adobe Systems Inc.	44
				10	AutoCAD 2023	Autodesk Inc.	37

8. 일반영상 및 기타 장르

4분기 일반영상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534건으로, 유통경로 중 '커뮤니티'에서만 나타났으며, 모두 국내 '뮤지컬 촬영물 거래' 권으로 확인되었다.

●●● [표] 방송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국내외 비중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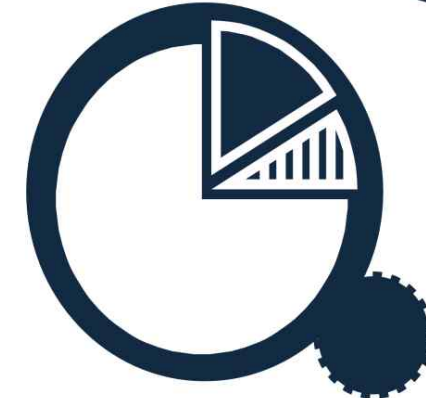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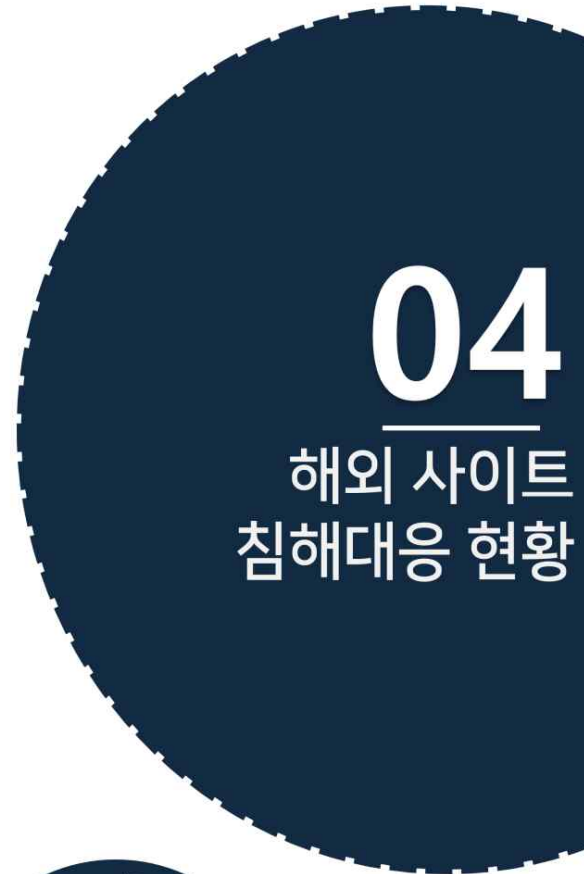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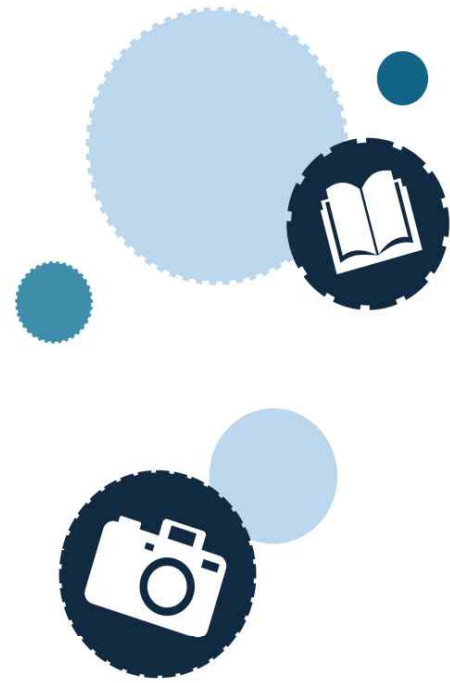
구분	유통량	비중	국내	비중	국외	비중
웹하드	-	-	-	-	-	-
커뮤니티	534	100.0	534	100.0	-	-
국내 기타	-	-	-	-	-	-
국외 기타	-	-	-	-	-	-
합계	534	100.0	534	100.0	-	-

4분기 기타 장르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361건으로,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비중)은 '국내 기타' 310건(85.9%), '커뮤니티' 51건(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ISD 판매페이지' 및 '불법 정보 제공 블로그' 권으로 확인되었다.

●●● [표] 기타 장르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국내외 비중

(단위 건, %)

구분	유통량	비중	국내	비중	국외	비중
웹하드	-	-	-	-	-	-
커뮤니티	51	14.1	51	14.1	-	-
국내 기타	310	85.9	310	85.9	-	-
국외 기타	-	-	-	-	-	-
합계	361	100.0	361	100.0	-	-



제4장 해외 사이트 침해 대응 현황

1. 접속차단

가. 대체사이트 방심위 접속차단 요청 현황

4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대체사이트는 총 771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스템' 등록을 통한 접속차단 요청은 총 770건, 접속차단 가결은 총 240건으로 나타났다. 대체사이트 유형별 현황은 '링크' 121건(15.7%), '만화' 41건(5.3%), '스트리밍' 172건(22.3%), '웹소설' 21건(2.7%), '웹툰' 168건(21.8%), '토렌트' 248건(32.2%)으로 나타났다. 보호원이 차단 요청한 대체사이트 총 770건 중 240건(31.2%)이 방심위 심의를 통해 접속차단 조치되었다.

[표] 대체사이트 방심위 차단요청 현황

(단위 건, %)

구분	대체사이트 모니터링		방심위 요청(등록)		방심위 가결	
	대체사이트	비중	대체사이트	비중	대체사이트	요청 대비 가결 비중
링크	121	15.7	121	15.7	21	17.4
만화	41	5.3	41	5.3	12	29.3
스트리밍	172	22.3	171	22.2	47	27.5
웹소설	21	2.7	21	2.7	3	14.3
웹툰	168	21.8	168	21.8	25	14.9
토렌트	248	32.2	248	32.2	132	53.2
합계	771	100.0	770	100.0	240	31.2

[그림] 대체사이트 모니터링 현황 및 비중



나. 대체사이트 유형별 모니터링 순위

4분기 대체사이트 유형별 모니터링 된 사이트 순위는 다음과 같다. 스트리밍(링크) 유형에서는 '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티***'가 11건, '아***'가 10건, '짹***'가 8건으로 나타났다. 토렌트 유형에서는 '토***', '토***'이 모두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과 '토***', '토렌***'가 모두 10건으로 나타났다. 웹툰 유형에서는 '툰*(***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블***', '아***', '툰*'가 모두 9건으로 나타났다. 웹소설 유형에서는 '아***소설'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유형(만화)에서는 '미***'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 [표] 대체사이트 유형별 모니터링 순위

(단위 건)

순위/적발 수	스트리밍(링크)	토렌트	웹툰	웹소설	기타
1	후***	토***	툰*(***툰)	아*** 소설	미***
모니터링 수	12	11	13	10	8
2	티***	토***	블***	북***	제***
모니터링 수	11	11	9	8	6
3	아***	토***	아***	소***	일***
모니터링 수	10	10	9	3	6
4	짹***	토***	툰*		애니***
모니터링 수	8	10	9		5
5	오***	토렌***	툰*		미***
모니터링 수	8	10	8		4
6	코***	토***	호***		미***
모니터링 수	7	9	8		4
7	코리아***	토***	밤*** 시즌2		
모니터링 수	7	9	8		
8	왓***	토***	뉴***(***)		
모니터링 수	7	9	8		

2. 검색 제한 요청

가. 국내외 포털사 검색 제한 요청 현황

4분기 국내외 포털사 검색 제한요청 현황은 '국내(네이버)' 280건, '국외(구글)' 4,720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이트별 국내(네이버) 요청 건수는 '스트리밍 링크' 196건(70.0%), '토렌트' 84건(30.0%)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이트 유형별 국외(구글) 요청 건수는 '토렌트' 2,017건(42.7%), '만화/웹툰 사이트' 1,745건(37.0%), '스트리밍 링크' 958건(20.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국내외 포털사 검색 제한 요청 현황

(단위 건, %)

구분	네이버(국내)		구글(해외)	
	요청	비중	요청	비중
만화/웹툰 사이트	-	-	1,745	37.0
스트리밍 링크	196	70.0	958	20.3
토렌트	84	30.0	2,017	42.7
합계	280	100.0	4,720	100.0

나. 불법 사이트 유형별 국외(구글) 포털사 검색 제한 요청 전송형태 현황

4분기 불법 사이트 유형별 국외(구글) 포털사 검색 제한 요청 전송형태 현황은 토렌트(게시판형), 직접 전송(게시판형), 직접 링크(게시판형)으로 분류하였다. 토렌트(게시판형)은 2,017건, 직접 전송(게시판형)은 1,745건, 직접 링크(게시판형)은 958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현황은 토렌트(게시판형)은 '토렌트' 2,017건, 직접 전송(게시판형)은 '만화/웹툰 사이트' 1,745건, 직접 링크(게시판형)은 '스트리밍 링크' 958건으로 나타났다.

●●● [표] 불법 사이트 유형별 국외(구글) 포털사 검색 제한요청 전송형태 현황

(단위 건)

구분	구글(해외)		
	토렌트(게시판형)	직접 전송(게시판형)	직접 링크(게시판형)
토렌트	2,017	-	-
스트리밍 링크	-	-	958
만화/웹툰 사이트	-	1,745	-
합계	2,017	1,745	958

3. 광고 게재 중단 요청

4분기 해외 불법 사이트 내 광고 게재 중단 요청 현황은 광고 게재 사이트 22건, 중단 확인 사이트 20건, 중단요청 광고 수 1,791건, 중단 확인 광고 수 1,788건으로 나타났다. 해외 불법 사이트 유형별 광고 게재중단 확인 현황은 '스트리밍 링크' 1,081개, '만화/웹툰 사이트' 673개, '토렌트 사이트' 34개 순으로 나타났다.

●●● [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광고 게재 중단 요청 현황

(단위 건)

구분	광고 게재 사이트 ³⁾	중단 확인 사이트 ⁴⁾	중단 요청 광고 수	중단 확인 광고 수
10월	11	9	832	829
11월	11	11	959	959
합계	22	20	1,791	1,788

●●● [표] 해외 불법 사이트 유형별 광고 게재 중단 확인 현황

(단위 건)

구분	만화/웹툰 사이트	스트리밍 링크	토렌트
10월	304	525	-
11월	369	556	34
합계	673	1,081	34

●●● [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광고 게재 중단 확인 광고대행사 현황

(단위 건)

구분	요청 대행사	중단 확인 광고 수
10월	크리****	519
	(주)와이****	291
	알티비코리****(유)	19
11월	(주)와이****	397
	크리테****	15
	알티비코리****(유)	547
합계		1,788

3) 광고 게재 사이트란 실제 광고가 게재되어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 게재 중단 요청한 사이트를 의미

4) 중단 확인 사이트란 광고 게재 사이트 중 실제 광고가 중단 확인한 사이트를 의미



제5장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모바일앱 유통현황

1.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유통현황

가. 불법 스트리밍 장치별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동안 국내 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판매 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10개의 ISD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ISD별 유통량(비중)은 'EV ***' 총 256건(82.6%), 'U ***' 총 54건(17.4%)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 [표] 불법 스트리밍 장치별 유통량 및 비중

(단위 건, %)

구분	EV ***	U ***	EP***	합계
판매 페이지	256	54	-	310
비중	82.6	17.4	-	100.0

나. 유통경로별 불법 스트리밍 장치 유통 현황

4분기 동안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온라인마켓에서의 유통이 확인되었다. 유통경로별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에 대한 유통량 및 비중을 확인한 결과, '지**' 총 64건, '쿠*' 총 62건, '네**' 총 58건, '옥*' 총 57건, '인***' 총 25건, '1***' 총 22건, '티*' 총 18건, '위**' 총 3건, '롯데**' 총 1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 [표] 불법 스트리밍 장치별 유통량 및 비중

(단위 건, %)

유통경로	EV BOX	U BOX	EPLAY	합계	비중
지**	52	12	-	64	20.6
쿠*	54	8	-	62	20.0
네**	51	7	-	58	18.7
옥*	44	13	-	57	18.4
인***	24	1	-	25	8.1
1***	13	9	-	22	7.1
티*	15	3	-	18	5.8
(주)위**	3	-	-	3	1.0
롯데**	-	1	-	1	0.3
S*****	-	-	-	-	-
합계				310	100.0

2. 모바일앱 유통현황

가. 불법 모바일앱 유통량 및 비중

4분기 동안 구글 앱 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방송·영화·음악 모바일앱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총 1,031건의 불법 모바일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르별 유통량(비중)은 '방송' 총 681건(66.1%), '영화' 총 178건(17.3%), '음악' 총 49건(4.8%), '영화·방송'을 모두 제공하는 앱은 총 123건(11.9%)로 확인되었다.

●●● [표] 장르별 불법 모바일앱 유통량 및 비중

(단위 건, %)

구분	방송	영화	음악	복합	합계
유통량	681	178	49	123	1,031
비중	66.1	17.3	4.8	11.9	100.0

나. 불법 모바일앱 콘텐츠 제공 방식

불법 모바일앱 총 1,031건에 대한 콘텐츠 제공 방식을 분석한 결과, '스트리밍 링크' 방식은 총 1,006건, '링크 제공' 방식은 총 4건, '다운로드' 방식은 총 14건, '복합' 방식은 총 7건으로 확인되었다.

●●● [표] 불법 모바일앱 콘텐츠 제공 방식

(단위 건, %)

구분	스트리밍 링크	링크 제공	다운로드	복합	합계
유통량	1,006	4	14	7	1,031

다. 불법 모바일앱 장르별 콘텐츠 제공 방식

1) 방송

●●● [표] 방송 불법 모바일앱 콘텐츠 제공 방식

제공 방식	앱수	비중(%)	설치 수
스트리밍 링크	678	99.6	78,639,120
링크 제공	3	0.4	55,100
다운로드	-	-	-
복합	-	-	-
합계	681	100.0	78,694,220

2) 영화

●●● [표] 영화 불법 모바일앱 콘텐츠 제공 방식

제공 방식	앱수	비중(%)	설치 수
스트리밍 링크	169	94.9	534,672
링크 제공	-	-	-
다운로드	5	2.8	553,000
복합	4	2.2	6,600
합계	178	100.0	1,094,272

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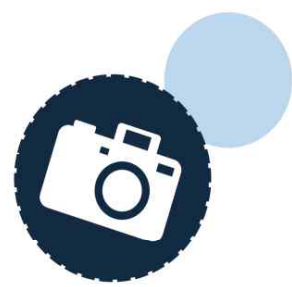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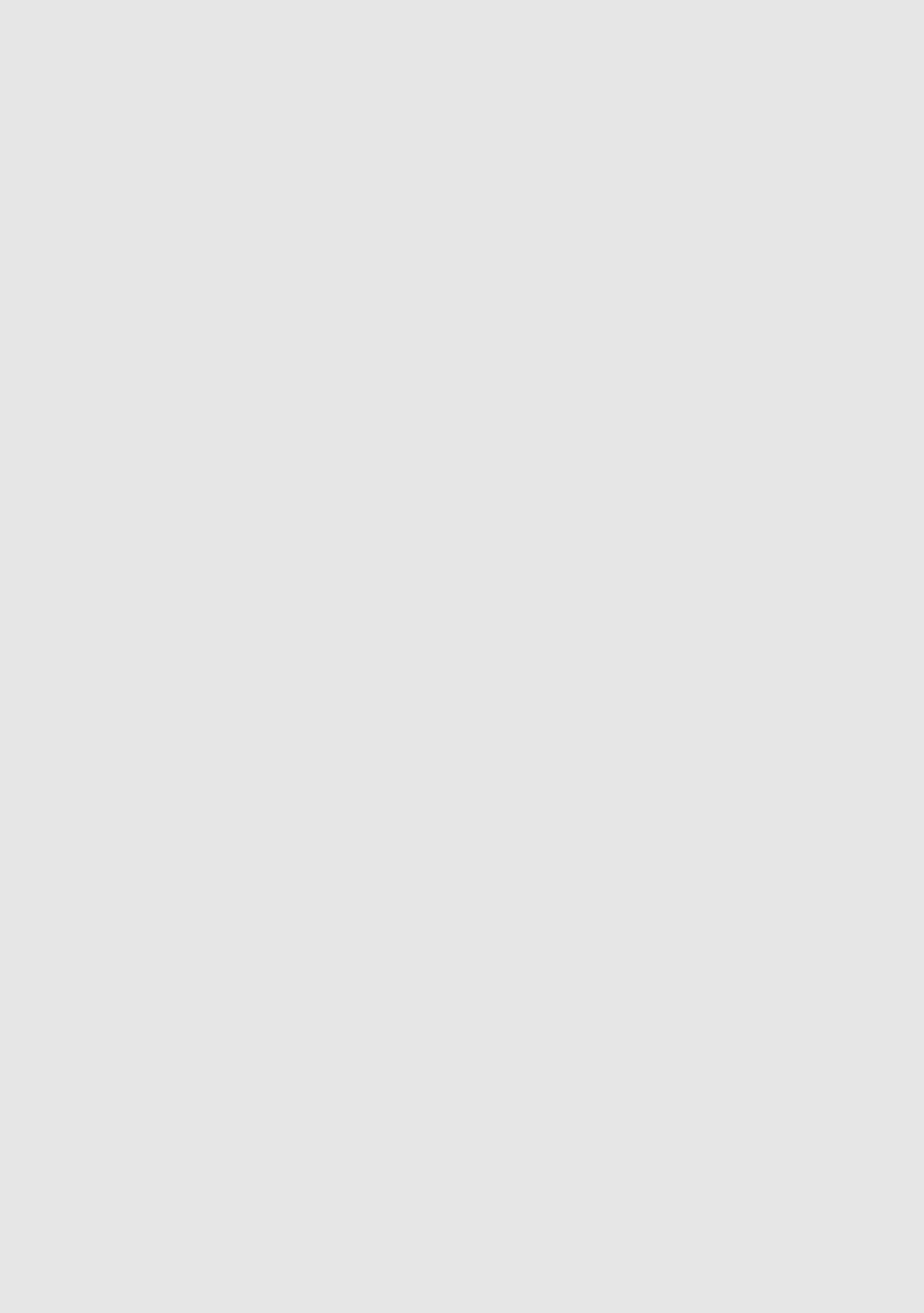
●●● [표] 음악 불법 모바일앱 콘텐츠 제공 방식

제공 방식	앱수	비중(%)	설치 수
스트리밍 링크	38	77.6	10,171,448
링크 제공	-	-	-
다운로드	8	16.3	31,610
복합	3	6.1	50,600
합계	49	100.0	10,253,658

4) 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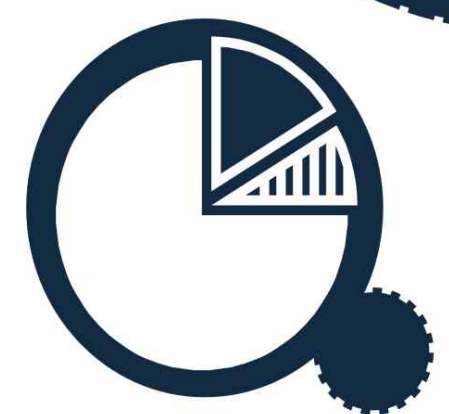
●●● [표] 복합 불법 모바일앱 콘텐츠 제공 방식

제공 방식	앱수	비중(%)	설치 수
스트리밍 링크	121	98.4	379,963
링크 제공	1	0.8	1,000
다운로드	1	0.8	500
복합	-	-	-
합계	123	100.0	381,463



06

온라인
저작권 주요 뉴스



제6장 온라인 저작권 주요 뉴스

영상

■ 불법 스트리밍 시장의 확대

◆ K-콘텐츠, 해외서 인기 끌며 불법복제 문제 심각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 이어 영화 '범죄도시3', 디즈니플러스 '무빙'까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의 5건 중 1건이 불법 복제되어 해외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불법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위반사범에 대한 형사입건 수는 2019년 762건(1592명)에서 올해 150건(286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문체부는 이를 인터넷 사이트의 우회기술이 고도화된 것을 원인으로 파악, 더욱 고도화된 전문 기법과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⁵⁾

◆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 성행에 모니터링 수요 증가

- '누누티비'와 같은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현재 불법 콘텐츠 유통은 저작권자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자체적으로 불법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전달, 보호원에서는 심의를 거쳐 구글 등 각 사업체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음.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리단체가 비교적 활발히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영상 콘텐츠의 경우 모니터링 접수율이 낮아 인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됨⁶⁾

◆ '누누티비' 폐쇄 후 '제2의 누누티비' 우후죽순 등장

- '제2의 누누티비'가 다수 출현하는 등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최신 드라마, 영화, 방송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유출, 특히 일부 사이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미국프로농구(NBA), 해외 축구 등 스포츠 중계를 무단 배포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함.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는 방송사와 OTT 등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대다수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이나 음란사이트 광고 배너로 다른 범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임⁷⁾

5) 김옥해(2023.10.10.), '무빙' 등 K-콘텐츠 불법복제 심각, 적발...처벌건수는 오히려 줄어, 뉴스클레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931>

6) 전민구(2023.10.11.), [단독]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 5544건 적발해놓고...삭제는 단 7건,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554#home>

7) 윤선훈(2023.10.16.), [단독] 기승부리는 '제2 누누티비'...29곳 또 적발 [2023 국감],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31016143038180>

■ 영상 저작권 침해와 분쟁

◆ 영화 ‘뉴 노멀’, 일본 작품 바탕에도 ‘K-호러’ 마케팅 논란

- 영화 ‘뉴 노멀’이 과거 방영된 일본 드라마의 기본 스토리를 따르고도 마치 창작인 것처럼 홍보하여 논란이 일고 있음. ‘뉴 노멀’은 영화 ‘기담’, ‘곤지암’을 만든 정범식 감독의 최신작으로 옴니버스로 이어지는 에피소드 6편 중 5편이 일본 후지TV 심야 드라마 ‘토리하다(소름)’의 이야기 구조와 사실상 동일함. 에피소드의 전개방식과 반전의 내용이 같은 것은 물론, 일부 장면은 카메라 앵글과 소품, 대사까지 똑같음. 하지만 홍보 시 ‘유니크한 K-호러’를 강조하고 크레딧 표기에서도 ‘토리하다’에 바탕한 사실을 소극적으로 표기하여 마케팅 윤리 논란이 발생함⁸⁾

◆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영화 시나리오 탈취 의혹

- 최윤진 영화감독이 시나리오 탈취 의혹에 휘말림. 최 감독은 지난 2018년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한 ‘해인’ 트리트먼트를 보고 접촉, 김 작가와 시나리오 작가 계약을 맺고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하여 ‘심해’라는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함. 하지만 최 감독이 김 작가에게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구, 이후 영화제작사와 ‘심해’ 제작 계약을 맺으며 제작사가 ‘심해’ 원안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제작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 작가는 최 감독이 자신을 ‘심해’ 시나리오를 단독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것을 확인, 최 감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함⁹⁾

◆ 디즈니, 모션캡처 기술 침해로 손해배상금 지급

- 디즈니가 다른 회사의 모션캡처 기술 저작권을 침해하여 60만달러(약 7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디즈니가 지난 2017년 실사판 ‘미녀와 야수’를 리메이크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얼굴을 렌더링하기 위해 허가 없이 리어든의 모바 콘투어(MOVA Contour)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판결한 것. 리어든은 “직원 중 한 명이 소프트웨어를 훔쳐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회사에 판매, 디즈니가 디지털 도메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모바 콘투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밝힘¹⁰⁾

■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 걸음

◆ ‘제2회 저작권보호 짤막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제2회 저작권 보호 짤막 영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작을 선정하고 상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시상함. 대상 작품은 저작권을 교묘하게 피해 가며 콘텐츠를 소비하고 나아가 주위 사람에게 추천하는 잘못된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올바른 콘텐츠 사용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음.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건전한 콘텐츠 소비를 주제로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76편의 작품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은 보호원 내·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 2903명이 직접 투표한 공개 심사를 거침¹¹⁾

◆ 문체부, ‘누누티비’ 국내 서버 사무실 압수수색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이 누누티비가 운영하는 서버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하고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힘.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누누티비 운영자를 도와줬던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자금 거래 행태나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 또한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함께 운영자에 대한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고 진함. 문체부는 이번 수사는 기존 수사와는 다른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수사 방식과 진행 등은 현 단계에서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전함¹²⁾

◆ 문체부, 국제공조수사로 인니 불법 IPTV 일당 검거

-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서비스 관계자 세 명을 검거함. 이들은 2015년부터 국내외 채널 72곳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예능·드라마 파일 약 10만8000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음. 해당 수사는 저작권자인 MBC 등이 지난 5월과 7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부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문체부가 국제공조 회의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하여 수사 단서를 확보하면서 성과를 이룸¹³⁾

◆ 국내 OTT 지원방안 논의한 ‘OTT 현장 간담회’ 개최

-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국내 주요 OTT 업체 대표가 참석한 ‘OTT업계 현장 간담회’가 개최됨. 간담회에서는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와 저작권법 개정에 앞선 OTT와 제작자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주요 논의로는 국내 OTT의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OTT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국내 OTT의 해외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이 있었음. 또한 창작자에 대한 OTT 재산 영분배금(추가보상) 지급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OTT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이 있었음¹⁴⁾

8) 신정선(2023.11.13.), 일본 드라마 그대로 베끼고도 ‘유니크한 K호러’라니,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movie_review/2023/11/13/V25V56GE4NH5ZL3PX4UGSJK7N4/
 9) 전형화(2023.12.19.), [단독] 이재훈 유해진 주연 ‘모멸해저드’ 감독, 시나리오 탈취 논란 휘말려, 일간스포츠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12190071>
 10) 김재관(2023.12.22.), 디즈니의 저작권 ‘내로남불’?...모션캡처 기술 침해로 7억원 물어줄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0904470>

11) 정경규(2023.11.13.), 저작권보호 짤막 영상 공모 대상...‘저작권 피하면서 콘텐츠 소비하기’,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3_0002519119&cID=10812&pID=10800
 12) 이복진(2023.11.15.), [단독] 문체부, ‘누누티비’ 국내 서버 사무실 지난 10월 압수수색...‘조력자 입건, 용의자 추적 중’,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15513356>
 13) 이종길(2023.12.04.), 문체부·경찰청 국제 공조수사로 인니 불법 IPTV 검거,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041114057344>
 14) 강일용(2023.12.15.), 해외 진출 애로사항은 현지화-저작권...‘국내 OTT에 대한 직접 투자 늘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31215155050263>

■ 영상 저작권 핫이슈

◆ 넷플릭스 계정 공유 단속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기승

- 넷플릭스 계정 유료화 발표 이후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티빙, 디즈니플러스에 이어 넷플릭스도 요금 체계를 바꾸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이탈하는 고객들이 증가한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로 토종 OTT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입장이 있지만, 토종 OTT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조치로 가장 좋아할 사람은 넷플릭스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입장을 전함¹⁵⁾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문화재 테러 홍보로 논란

- 경북궁 담벼락에 영상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를 적어 광고하는 사례가 등장함. 영화 불법 공개 사이트인 ‘누누’와 ‘윌렘프티비’가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북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윌렘프티비 feat.누누’라고 광고된 것. 경찰 조사결과 이는 임모군(17)과 김모양(16)이 SNS를 통해 1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짐. 한편 광고된 사이트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터넷프로토콜(IP)을 차단하지만, IP만 변경하여 다시 운영하면서 사실상 원천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임¹⁶⁾

◆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연’ 한복 브랜드 디자인 도용

-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연’이 한복 브랜드 리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됨. ‘열녀박씨 계약결혼연’에서 한복 디자인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리슬이 밀라노 패션위크에 선보였던 컬렉션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 리슬 측은 “잠깐 스쳐가는 장면이라도 정식으로 사용을 요청했다면 기쁘게 응하였을 텐데 저작권 인식이 매우 아쉽다”라고 입장을 밝힘. 논란이 일자 MBC 측에서는 리슬에 사과와 함께 출처 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리슬은 외주를 맡기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들임¹⁷⁾

15) 윤정민(2023.11.06.), 넷플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에 ‘누누티비’ 웃는다,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3_0002508673&cID=13005&pID=13100
 16) 노유정(2023.12.26.), 문화재 테러로 간 큰 홍보… ‘불법 OTT’ 독버섯처럼 번진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12261834108586>
 17) 김소연(2023.12.12.), ‘열녀박씨’, 소통 오류로 한복 디자인 도용? “저작권 인식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hot-issues/10896433>

■ 음악

■ 음악 저작권 갈등과 대립

◆ 이루마, 前 소속사와의 약정금 소송서 일부 승소

-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인 스톱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약 26억원 상당을 받게 됨. 스톱뮤직은 청구 금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20억915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씨와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추가로 얻었던 국내외 정산 수익금 5억 5224만원도 추가로 갚아야 함. 한편 이루마는 2001년 스톱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산 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 의무 불이행으로 2010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이후 스톱뮤직과 소송전을 벌여왔음¹⁸⁾

◆ OTT 3사,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소송’ 대법원 상고

- OTT 3사(웨이브·티빙·왓치)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권료 요율과 관련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임. 법정 다툼 발단이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하고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개정안으로, OTT 사업자에 대해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순차 상승하는 사용요율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김.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문체부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문체부 승소 판결을 내림¹⁹⁾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취소소송 제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송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고발당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를 반박하며 법정 다툼에 돌입함. 음저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 앞서 공정위는 음저협이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징구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 협회를 검찰에 고발함. 이에 음저협은 방송사가 협회에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저작료 납부를 거부해 왔기에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²⁰⁾

18) 구진욱(2023.10.28.), 이루마, 前소속사와 약정금 소송서 또 일부 승소…26억 받는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13266>

19) 권혜미(2023.11.02.), 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소송, 대법원 간다,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1102000217>

20) 권혜미(2023.11.15.), ‘저작권료 과다 청구’ 공정위 고발 조치…음저협, 취소소송 ‘맞붙’,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1115000291>

■ 국내외 저작권 보호 노력

◆ ‘2023 한·필 저작권 포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23 한·필 저작권 포럼’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됨. ‘디지털 시대의 음악저작권 산업과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개최된 포럼은 저작권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 신탁관리 단체 종사자 등이 저작권 법, 제도, 정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됨. 포럼에 이어 개최된 ‘한국-필리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교류회’는 한국과 필리핀 음악 집중관리단체 간 경험을 공유하고 음악 저작권 상호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²¹⁾

◆ 한음저협, ‘한·아세안 지식 재산 협력 콘퍼런스’ 참석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아세안 지역 관계자들과 상호 협력을 다짐. 한음저협은 행사에서 ‘콘텐츠 및 음악저작권 보호’ 세션 발표 및 토론을 진행, 각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은 저작권보호 제도의 소개 및 당면 과제에 대하여 열린 토론을 진행함. 또한 한음저협은 국내 이슈로 현행 저작권 등록 제도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패널들과 논의함. 이 밖에 각 참가국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효과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함²²⁾

◆ 뮤즈블라썸,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한 ‘오디오 디펜스’ 런칭

- 사운드테크 스타트업 뮤즈블라썸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사업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술을 적용한 ‘오디오 디펜스’를 론칭함. 뮤즈블라썸은 배경음악, 광고음악, 오디오북, 팟캐스트, 사운드 클라우드, 유튜브 등에 음원 콘텐츠를 공유할 창작자와 유통 서비스를 대상으로 워터마킹 서비스를 제공함. ‘오디오 디펜스’는 저작권 도용이나 침해가 의심될 경우 서명을 확인하여 검정할 수 있으며, 음원 공유 시에도 개별 수신자 기록을 통해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²³⁾

◆ 음악저작권단체,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함.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이 2팀으로 나뉘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커피전문점 30여 곳을 방문,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한 것.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서는 저작권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²⁴⁾

21) 하영(2023.11.15.), 한국, 필리핀과 음악 저작권 상호관리 강화한다,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181>

22) 장슬기(2023.11.23.), 한음저협, ‘한·아세안 지식 재산 협력 콘퍼런스’ 참석 ‘상호 협력 다짐’, 라온신문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26439>

23) 이진호(2023.11.25.), (주)뮤즈블라썸, 오디오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답을 쓰다 ‘오디오 디펜스’ 런칭, 매거진한경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311253316d>

■ 음악 저작권 핫이슈

◆ 음원파일 ‘내려받기’ 방조한 웹하드서비스 업체 벌금형

- 법원이 음악저작물 4169개를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웹하드서비스 업체와 대표를 유죄로 판단함. 앞서 웹하드서비스 대표인 A씨는 2015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2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전문 업체와 검색제한(필터링) 계약을 체결, 2개 사이트에 적용하고 모니터링 직원을 배치하여 문체파일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였음.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방지의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 사이트이용자들이 음원파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하며 웹하드서비스 업체와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²⁵⁾

◆ 국내 유튜버가 만든 노래 중국에서 무단으로 저작권 등록

- 국내 음악 프로듀싱 유튜버 ‘뉴플’이 자신이 만든 노래를 중국의 한 업체가 무단으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함. 뉴플은 누군가가 자신의 노래를 중국 틱톡에 무단으로 퍼간 뒤 A 업체가 중국에 저작권을 등록, 이후 A 업체가 중국 음원 사이트에서 자신의 노래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힘. 앞서 뉴플은 ‘플링 다운’이라는 제목의 곡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함. 이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빅뱅 멤버 네 명의 목소리를 입혀 만든 곡으로, 게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7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호평을 받음²⁶⁾

◆ 음원 정산 방식 ‘비례배분제’, AI 등장하며 논란 재점화

- 불법 스트리밍 또는 저품질 음원 양산 등을 통한 정산 왜곡 수법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며 현행 정산 방식인 ‘비례배분제’가 다시 논란임. 비례배분제는 음원의 재생수 점유율에 따라 저작권료가 정산되는 구조로, 사재기 등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재생 수를 인위적으로 높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이에 AI봇 등을 활용하여 스트리밍 수를 조작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최근 다시 문제가 제기됨. 한편 음원 정산 방식에 있어 국내는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한 네이버 바이브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 비례배분제를 중심으로 저작권료가 정산되고 있음²⁷⁾

24) 최용석(2023.11.13.), 4개 음악저작권 단체, 오프라인 캠페인 펼쳐…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1113/122147642/1>

25) 서원호(2023.12.15.), 음원파일 4000개 내려받기 방조 ‘벌금형’,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483014

26) 김찬호(2023.10.31.), “내 음악이 나도 모르게 中 차트에”…저작권 도둑질 고발한 유튜버,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31_0002503420&cID=50401&pID=50400

27) 이나연(2023.11.01.), 시로 교묘해진 정산 왜곡…韓 음원업계도 글로벌 추세 따를까, 디지털데일리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103116560004064>



어문

출판 저작권 침해와 분쟁

◆ '수학의 바이블' 저자, 이투스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 수학 교재 '수학의 바이블'의 저자가 교육 업체인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함. 소송을 제기한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 개념ON 고등 공통수학 1, 2'로 '新 수학의 바이블' 시리즈 중 하나임. 저자 측은 이투스가 '원고 집필 및 출판권 설정 계약'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저서인 수학의 바이블을 복제한 책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앞서 저자는 이투스와 2006년 수학의 바이블을 비롯한 관련 시리즈 저작물에 대한 출판 계약을 맺고 교재를 출간했으나 급작스럽게 계약 종료를 통보받는 등 권리가 침해됐다고 설명함²⁸⁾

◆ 이우진 작가, 형설앤 제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 '검정고무신'의 공동 창작자인 이우진 작가가 형설앤이 제기한 '만화 안중근'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 재판부는 이 작가가 '만화 안중근'의 원고를 완성해 EBS를 통해 연재, 출판한 사실을 형설앤이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형설앤이 출판권 설정 계약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시함. 또한 이우진 작가가 지난 2009년 9월에 형설앤에 '만화 안중근'의 원고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편 이우진 작가와 형설앤은 이 밖에도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인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임²⁹⁾

◆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선천성 심장병' 자료 표절 의혹

-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교과서가 표절 의혹에 휩싸임. 앞서 '선천성 심장병'를 출간한 박인숙 교수가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교과서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공저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 박 교수는 소아심장과 교수로 재직하며 30년 이상 모은 자료와 진료치침을 집대성한 '선천성 심장병' 교과서를 펴내면서 심장모식도 그림을 직접 그렸었음. 박 교수는 이후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교과서에 자신의 그림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확인, 심장모식도의 색깔만 약간 다를 뿐 모양과 표기, 숫자가 동일하다며 고소 배경을 밝힘³⁰⁾

◆ 에듀테크 기업, 출판사와 저작권 침해 문제로 갈등

- 에듀테크 기업 프리윌린이 교재 출판사 개념원리, 지학사에게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소를 당

28) 김승모(2023.10.12.), [단독]수학의 바이블' 저자, 이투스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026722>

29) 김문영(2023.12.22.), "마감 안 해서 책 못 냈다"?... '검정고무신' 공동창작 이우진 작가 2심도 승소,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culture/4988923>

30) 장혜원(2023.12.05.), [단독] "복사기인 줄..." 소청과로 번진 한방교과서 표절 논란, 스카이드일리 https://www.skydaily.com/news/news_view.html?ID=214232

함. 프리윌린은 수학 문제은행 '매쓰플랫' 운영사로 교과서 및 시중 교재와 연동해 직접 제작된 약 70만 개의 수학 콘텐츠를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교육 앱을 표방함. 두 출판사는 매쓰플랫이 제공 중인 '유사문제'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음. '유사문제'가 원본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아니지만 원본과 유사한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듯이 원본과 비슷한 문제도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 한편 프리윌린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³¹⁾

출판 저작권 핫이슈

◆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출판사와 상호 합의

- 전자책 불법 유출 사태로 분쟁하던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한국출판인회의가 합의함.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 따르면 알라딘은 지난 5월 발생한 '전자책 불법 유출 사태'에 대해 오는 2024년 3월까지 피해 출판사에 위로금을 지급하며, 전자책 유출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보안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출판계에 공유하기로 약속함. 이에 출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중단했던 전자책 판매를 11일부터 재개하기로 함. 앞서 알라딘은 지난 5월, 10대 고등학생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5000권이 유출되었음³²⁾

◆ 전자책 대형 서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점 공동 협의회' 출범

- 대형 전자책 서점 5곳(교보문고, 리디, 밀리의 서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예스이십사)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점 공동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출판 전자책 저작권 보호에 나섬. 협의회는 오래 전부터 불법 복제, 스캔 파일로 출판 저작권 불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전자책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나서기 위해 협의회를 창립했다며 취지를 밝힘. 또한 저작권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책 공유 및 유출이 엄연한 불법임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³³⁾

◆ 콘텐츠 소유권 논란 불거진 디지털 유통 플랫폼

- 디지털 유통 플랫폼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콘텐츠가 사용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디지털 콘텐츠 유통은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대여하는 스트리밍 형식,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한 유통 플랫폼이 언제든지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임. 관련 사례로 플레이스테이션이 연말까지 1300개의 디지털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통보하며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환불 규정 등을 밝히지 않아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 경우가 있었음³⁴⁾

31) 윤석진(2023.11.10.), [단독]"그만 베껴' 에듀테크 '매쓰플랫' 저작권 침해로 피소... '판다'도 도마 위, MTN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111010065145167>

32) 신재우(2023.12.07.), [단독]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출판사와 상호 합의... '위로금 지급 결정', 뉴스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7_0002550155&clD=10704&plD=10700

33) 알라딘 제공(2023.12.14.), 전자책 대형 서점 5개사, 출판 저작권 보호에 힘 모은다, 뉴스와이어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81052>

34) 시리포터(2023.12.15.), 내 돈 주고 산 전자책을 더는 볼 수 없을까? 콘텐츠 소유권 논란, 디지털투데이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dxno=498318>



게임/SW

■ 게임 저작권 침해와 분쟁

◆ 넥슨,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주범 검거

- 넥슨이 게임 메이플스토리 등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주범 2인을 검거,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함. 또한 해외 도피 중인 1인에 대해서는 인턴폴 수배 조치를 내림.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마치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함. 넥슨은 향후에도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한 보유 게임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계획을 전함³⁵⁾

◆ 크래프톤, 중국 게임사 넷이즈 상대 저작권 소송 승소

- 크래프톤이 중국 게임사 넷이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5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음. 재판부는 넷이즈의 모바일 게임 ‘황야행동’이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와 여러 면에서 유사, 사용자들에게 황야행동이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이라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함. 또한 넷이즈가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게임을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사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함. 법원의 판결에 양사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함³⁶⁾

◆ 엔씨소프트-웹젠 2심 재판부, 양측에 조정 제안

-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양측에 중재를 권고하는 조정회부결정을 내림. 조정회부판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절차로,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 재판은 종료됨. 한편 엔씨는 웹젠이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을 만들며 자사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 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웹젠에 승소함. 이에 웹젠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엔씨 역시 1심에서 청구된 금액(10억원)을 늘리기 위해 항소함³⁷⁾

35) 임영택(2023.10.27.), 넥슨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주범 검거…저작권 침해 강력 대응”, 매일경제 <https://game.mk.co.kr/view.php?year=2023&no=824164>

36) 간형우(2023.11.30.), [단독] 크래프톤, 중국 게임사 넷이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코리아헤럴드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231130000816&md=20231201003036_BL&kr=1

37) 윤선훈(2023.12.03.), [단독] 엔씨-웹젠 저작권 소송 새 국면 맞나…법원, 양측에 조정 제안,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31203142652913>

■ 저작권 침해 의혹과 논란

◆ ‘다크앤다커 모바일’, 저작권 논란 속 ‘지스타2023’ 전시 예고

- ‘다크앤다커’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게임이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2023’에 전시를 예고 하면서 논란임. 원작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다크앤다커는 넥슨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개발진이 퇴사하고 아이언메이스에서 유사한 게임을 출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지난 2021년부터 아이언메이스 개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옴. 한편 지스타를 개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있어야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함³⁸⁾

◆ 게임 속 캐릭터의 ‘이모트’, 안무 표절 의혹으로 재판

- 안무가 카일 하나기미가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 파기환송되어 해당 건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됨. 카일 하나기미는 지난 2022년 3월 에픽게임즈가 2017년 발매된 찰리 푸스의 ‘하우 룽’을 위해 만든 자신의 안무를 표절해 포트나이트의 이모트를 제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이모트는 게임 속 캐릭터의 몸동작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댄스로 구현됨. 한편 202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해당 동작이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 단순한 루틴이라고 에픽게임즈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음³⁹⁾

◆ 설계 프로그램 무단 복제 혐의에 ‘증거부족’ 무죄 판결

- 3D 설계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음.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판매영업대행업체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설치한 후 약 7개월 동안 사용하였음. 검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언제, 누가 복제했는지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려우며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물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함⁴⁰⁾

38) 조윤찬(2023.11.02.),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지스타서 공개… 저작권 논란 지속, 시사위크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76>

39) 홍성일(2023.11.04.), 세계적 안무가 카일 하나기미, 에픽게임즈 상대 재판 ‘파기환송’, 더구루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2197>

40) 황수빈(2023.10.24.), 설계 프로그램 무단복제 혐의 40대에 “증거부족” 무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4134900053?input=1195m>

■ 게임/SW 저작권 핫이슈

◆ 이상헌 의원,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 대표발의

-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을 대표발의함. 이는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을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함.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 제작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설 서버 구축 및 접속 프로그램 배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⁴¹⁾

◆ 게임물관리위원회, 앱 마켓에 짝퉁 게임 적극 대응 요청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애플 등에 저작권 침해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이 알려짐. 불법 복제된 게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사법부 판단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 등급 취소 조치를 함.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는 많은 제한이 따라 구글·애플 등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임.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자들이 짝퉁 게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며, 이에 피해 게임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시 사업자들이 적극 대응할 것을 게임위가 주문한 것으로 풀이됨⁴²⁾

◆ SW산업 격려하는 '제11회 SW산업보호대상' 시상식 개최

- 제11회 SW산업보호대상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임. SW산업보호대상은 생활과 산업, 경제를 서로 정의하는 시대에 체계적인 SW 투자와 자산관리, 정품 사용문화에 앞장서는 기관과 기업, 개인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음. 올해 행사에서는 SW 자산관리와 저작권 보호활동, 관련 문화·인식 확산을 통해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과 기업, 개인 총 26곳이 상을 받으며, 특히 이번에는 다우데이터, 핸디소프트, 브이티더블유 등 한국 SW 산업의 큰 흐름을 이어나온 기업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을 예정임⁴³⁾

41) 이주환(2023.12.06.), 이상헌, 게임 사설 서버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게임스데일리 <https://www.tg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406>

42) 윤선훈(2023.10.10.), [단독] '짝퉁 게임' 방치된 구글·애플...게임위 "저작권 침해 적극 대응" 경고,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31010141230392>

43) 안경애(2023.11.22.), [SW산업보호대상] 디지털 심화·AI 대중화 시대 핵심은 '소프트웨어', 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12302101231650001&ref=naver

■ 웹콘텐츠

■ 웹콘텐츠 저작권 갈등과 대립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 발표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10명 중 6명이 유료 웹툰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법 이용자들은 불법 이용 경로로 SNS, 유튜브,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와 60대에서 불법 콘텐츠 소비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불법 사이트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주소 마지막에 붙는 숫자만 바꿔 가며 새로운 사이트를 대거 생성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있음⁴⁴⁾

◆ 웹소설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 작가 표절 소송 제기

- 웹소설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 작가가 '뺏긴 자리에 미련 없습니다' 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언니내왕'은 2020년 네이버 웹소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으로 10월 기준 다운로드 횟수 5000만회를 돌파한 인기 웹소설임. '언니내왕'의 작가 레팔진씨는 '뺏긴자리'의 등장인물의 특징, 서사 구조, 주요 에피소드가 '언니내왕'과 유사하다고 주장함. 한편 웹소설 업계에서는 표절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자간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나온 경우가 드물었음⁴⁵⁾

◆ 카카오펀터테인먼트,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 카카오펀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펀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작가에게 저작권 관련 갑질을 했으며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열린 5개 웹소설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펀터테인먼트에 있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로 삼으며 이를 갑질로 해석한 것. 이에 카카오펀터테인먼트는 실제 해당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정위가 실제 피해사례가 아닌 계약서 문구로 사안을 판단했다고 문제를 삼음⁴⁶⁾

44) 오주현(2023.11.26.), 10명 중 6명 '웹툰 불법 이용'...끝없는 '만화 도둑' 잡기,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41641>

45) 임자선(2023.10.26.), 웹소설 '언니, 이번생엔 내가 왕비야' 작가, '뺏긴 자리에 미련없습니다' 작가 상대로 표절 소송 제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10261531001>

46) 김민정(2023.12.21.), [단독] '저작권 갑질' 과징금 맞은 카카오펀터, 공정위 상대로 취소소송,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12/21/4QFTE4NDCZAOXLGKRD33Y7HIQ4/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툰 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 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함.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화·웹툰 산업의 가능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간담회에서는 최근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가속화되는 기술 환경 변화와 만화·웹툰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애로사항을 나눔. 문체부는 "앞으로 만화·웹툰은 지역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로 키워보겠다는 뜻이 있다. 오늘이 첫 시도로,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준비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힘⁴⁷⁾

◆ 해외 불법사이트 150여개 활동 중단 시킨 네이버웹툰

- 네이버웹툰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사이트 색출에 나선 결과 지난 3개월간 해외 불법 사이트 150여개가 활동을 멈췄다고 밝힘. 네이버웹툰은 지난 7월 미국의 한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360여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 신청,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확보한 바 있음. 한편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라랩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조치로 영향을 받은 150여개 불법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약 25억회에 달함⁴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日 만화업계에 불법유통 근절 제안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한국 웹툰·웹소설 플랫폼 대표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교류회와 워크숍에 참여하여 세계 최대 불법유통 사이트인 'M' 사이트 운영자 3명에 대한 공동 법적 행동을 일본 만화계에 공식 제안함. 또한 구글 등 글로벌 포털 사이트와 SNS 등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게시물 차단, 잠입 수사를 통한 해외 불법 번역그룹 커뮤니티 및 불법 사이트 폐쇄, 글로벌 공조를 통한 웹사이트 폐쇄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주도하는 다양한 불법유통 대응 방법과 전략을 소개함⁴⁹⁾

■ 웹콘텐츠 저작권 핫이슈

◆ 생성형 AI 무단 학습 면책법 논의에 창작자 단체 우려

- 만화·웹툰 창작자 단체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면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이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웹툰이 시에 의해 무단으로 학습돼 저작권자에게 보상 없이 상업

적 시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공동 입장문을 낸 것. 만화·웹툰 창작자 단체들은 면책 규정 도입이 웹툰 작가의 창작 동기 저하와 경제적 손실, 창작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⁵⁰⁾

◆ 네이버웹툰, 작가 맞춤형 생성 AI 창작 지원툴 구축

- 네이버웹툰이 작가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성 AI 창작 지원 툴을 연구 중임. 시가 내 작품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그 지원 툴은 나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작가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작업 능률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네이버웹툰이 개발 중인 작가별 시툴은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캐릭터를 학습하여 해당 캐릭터가 여러 장면에서 쓰일 때 반복 작업에 대한 수고를 덜어주는 콘셉트임. 한편 네이버웹툰은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도메인의 시를 집중 연구하는 '웹툰 AI' 조직을 운영, AI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⁵¹⁾

◆ 국내 넘어 해외서 열풍 일으키는 K-웹툰·웹소설

- 국내 웹툰·웹소설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현재 해외에서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는 국내 웹툰·웹소설은 10여 편으로, 이 중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 경우도 있음. 'N번째 연애'는 대만 현지 제작사를 통해 드라마 시리즈로 나올 예정이며, '호형호제'는 태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됨. '아쿠아맨'은 일본에서 드라마로 재가공되었으며, '나 혼자만 레벨업'과 '외과의사 앨리제'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이 크게 증가함⁵²⁾

47) 이지은(2023.11.27.), 만화·웹툰계,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요구... "더 빨리 차단하고 단속할 것",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27001006>

48) 윤현성(2023.11.02.), '웹툰 불법 사이트' 선전포고한 네이버웹툰...150여개 문 닫았다,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2_0002506226&clD=13006&plD=13100

49) 차민영(2023.12.01.), 카카오엔터테인먼트, 日만화업계에 불법유통 근절 제안,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0109410251538>

50) 김진(2023.11.28.), 만화·웹툰계 "AI 무단 학습 면책법 국회 논의...작가 피해 우려", 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28000828>

51) 한광범(2023.12.10.), [단독]"내 그림만 학습자료로"...네이버웹툰, 작가별 시툴 구축한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1926635837208&mediaCodeNo=257>

52) 남유정(2023.11.21.), 날개 단 K웹툰·웹소설... 해외로 뻗어간다,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2113272009606>



기타

기타 저작권 침해 의혹

◆ 고상우 작가, 최해구 작가와 그림 표절 시비

- 고상우 작가가 한 카페의 벽화가 자신의 그림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문제의 그림은 고 작가의 '운명'으로, 호랑이의 얼굴과 색채 등이 고 작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평을 받음. 고 작가는 카페 측에 벽화를 지워달라는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카페 측과 벽화를 그린 작가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함. 한편 벽화를 그린 최해구 작가는 고 작가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벽화를 그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영향을 받았을 뿐 표절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함⁵³⁾

◆ 국립중앙박물관 '빛의 과학' 특별전 영상 표절 의혹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에서 상영한 국내 미디어아트 제작 업체의 작품이 영국 작가 '셰프 리'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음. 해당 미디어아트의 제작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저작권 비침해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서약서에는 제작사가 셰프 리의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책임 없음'을 보증하고 저작권침해로 밝혀지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⁵⁴⁾

◆ 中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제품 판매 항의에도 무대응

-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국내 중소기업의 인기 제품이 카피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질이 낮은 짝퉁 제품을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마치 정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함.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업체의 판매 중단 요청에 '중국법상 이미 중국 내에서 판매가 시작된 제품의 경우 저작권을 등록하더라도 판매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답변함. 나아가 한국에서만 해당 제품을 검색할 수 없도록 검색어 조치하여 국내 업체의 항의를 피함⁵⁵⁾

◆ '내 트리를 꾸며줘' 웹서비스 무단 도용 피해 의혹

- 국내 스타트업 언박서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익명 편지'로 인기를 끌었던 '내 트리를 꾸며줘'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내 트리를 꾸며줘'는 산타파이버가 2021년 11월 개시한 온라인판 롤링페이퍼 서비스로 가입자가 자신의 트리를 만들면 지인들이 편지를 써 트리를 장

식,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어야 편지를 열람할 수 있는 방식임. 언박서스는 '내 트리를 꾸며줘'와 유사한 서비스 '데코마이트리'를 개시하기 전, 산타파이버에 광고주인 것처럼 접근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또한 받고 있음⁵⁶⁾

■ 생성형 AI 저작권 논란

◆ 정부,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도입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시가 만들었다는 표시 도입을 추진함.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 침해와 가짜 뉴스 확산 등 생성형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AI 생성에 사용된 원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함. 다만 생성물을 어떤 방식으로 워터마크를 표시할지는 미정이며, 맨눈으로 보이는 표시보다는 기계가 AI 생성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정부는 또한 기업들과 AI 기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자율적인 검·인증 제도를 조만간 도입하기로 함⁵⁷⁾

◆ 英, '인공지능 특허 소유권' 불가 최종 판단

- 인공지능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이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림. 이는 AI에 대해 인간과 같은 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해당 사건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고안한 두 가지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에 다부스를 기재하며 불거짐. 그의 특허 등록 신청은 '발명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영국 특허청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탈러가 불응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이어 패소함⁵⁸⁾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뉴스 저작권 논란 재점화

-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저작권 문제가 다시 불거짐. 데이터 학습이 가장 중요한 생성형 AI의 경우,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냐 따라 답변이 달라져 객관적이고 정보성이 높은 뉴스 데이터가 가장 좋은 학습 데이터로 여겨짐. 하지만 생성형 AI가 뉴스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 중임. 하이퍼클로바X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현재 다양한 창작자 집단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힘⁵⁹⁾

53) 성수영(2023.10.04.), 너무나도 많은 두 호랑이...표절인가, 모티브인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454881>

54) 김정현(2023.10.23.), 국립중앙박물관 '빛의 과학' 특별전 영상, 저작가 작품 표절 의혹,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07331>

55) 김태현(2023.12.15.), [단독] '내 타로카드가 중국에'...청년사업가 울리는 中 알리익스프레스,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666010>

56) 윤연정(2023.12.20.), [단독] '내 트리를 꾸며줘', 크리스마스 앞두고 도용당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1163.html

57) 김은성(2023.10.25.), 정부,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도입 추진,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251245001>

58) 최진석(2023.12.21.), 영국 대법원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최종 판단,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108891>

59) 이정현(2023.10.17.), 하이퍼클로바X 뉴스 저작권 논란 재점화... "상생 솔루션 준비 중", 머니투데이

■ 기타 저작권 핫이슈

◆ 이순신 영정 작가 후손 한국은행 상대 소송에서 패소

-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작가인 고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함.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함. 장 화백의 후손은 1973년부터는 500원권 화폐에, 1983년부터 현재까지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지난해 2021년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⁶⁰⁾

◆ 밀캠·밀녹 등 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공연계

- 공연계가 밀캠(무단 녹화), 밀녹(무단 녹음)으로 꾸준히 몸살을 앓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무단 증계로까지 악화되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밀캠·밀녹을 보는 시선이 마냥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실제로 뮤지컬 '레베카'가 SNS로 무단 생중계되었을 때 이를 옹호하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있었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무단 녹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한 영상저작물과 같이 공연 또한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⁶¹⁾

◆ 'SNS 게시물 베끼기'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

- 타인의 SNS 게시물을 마치 본인이 쓴 것처럼 게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피해자는 기계항공공학 박사로서 평소 자신의 SNS에 전문성 있는 글을 다수 업로드함. 가해자는 미리 복사해 둔 피해자의 글 40개를 자신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업로드, 독자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행세함. 재판부는 가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며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 첫 사례가 됨⁶²⁾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1716023269175>

60) 이영섭(2023.10.13.), 이순신 영정 작가 후손 '100원 동전' 저작권 소송 패소(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3101951004?input=1195m>

61) 박정선(2023.10.16.), 저작권 인식 바닥…뮤지컬 불법 생중계, 왜 처벌 힘들까 [D:이슈],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3112/>

62) 안세연(2023.12.22.), 대법 "타인 SNS게시물 베껴서 올리면 처벌"…저작권법위반죄 첫 판단, 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22000013>

기획·집필·디자인	온라인보호부 김찬솔 과장
국내외 재택모니터링	온라인보호부 서준호 선임
접속차단	온라인보호부 윤영석 선임
광고 게재 중단/ 검색제한	온라인보호부 신하은 주임
온라인 저작권 뉴스/ ISD	온라인보호부 최효빈 주임
모바일앱	온라인보호부 양해지 주임

4분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인	박정렬
발행처	한국저작권보호원
담당 문의	온라인보호부 김찬솔 과장(02-3153-2463)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4, 9, 10층
	전화 1588-0190 / 팩스 (02) 3153-2719
	누리집(http://www.kcopa.or.kr)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이용허락 유형 중 4유형으로,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합니다.

